

독립정신

2014 07, 08
통권76



특집 1.

한미일 군사동맹, 한반도의 군사대치-경제위기 부른다.

특집 2.

트로이의 목마,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김정륙의 회고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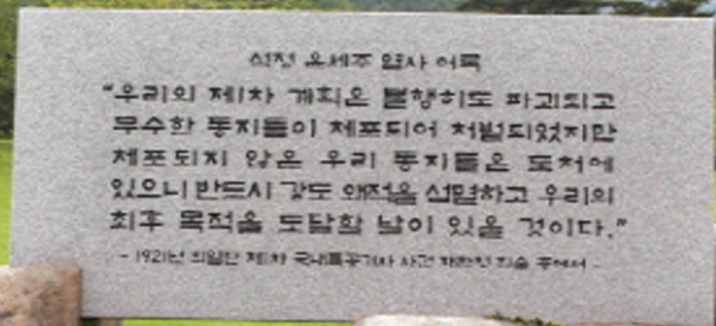
帝國을 뚫고, 19/45

제국을 뚫고 조국의 품으로

윤세주(尹世冑 : 1901 ~ 1942)

우리의 제1차 계획은 불행히도 파괴되고
무수한 동지들이 체포되어 처벌되었지만
체포되지 않은 우리 동지들은 도처에 있으니
반드시 강도 왜적을 섬멸하고
우리의 최후 목적을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다.

-1921년 의열단 제1차 국내특공거사 사건 재판청 진술에서-



윤세주(尹世冑) : 의열단 활동,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위원, 조선의용대 활동

(위치 : 독립기념관 경내)

76

「독립정신」 76호(7, 8월) 표지 인물

백암 박은식(朴殷植)

(1859. 9. 30 ~ 1925. 11. 1)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근대 민족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으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맡으며 민중계몽운동을 벌였다.

1906년 대한자강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서북협성학교 오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민족교육을 실천하였다. 1907년 비밀결사 신민회에서 활동하던 중 일제에 의해 역사서 간행이 금지되자 1911년 5월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많은 우리의 역사서를 집필하였다.

중국 내 최초의 한국 독립운동단체 동계사를 만들고 총재로서 이끌었고, 풍찬노숙(風餐露宿)의 독립운동 전선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한국통사>를 완성하여 1915년 간행하였다. 또한 1915년 신한혁명당의 결성, 대동보국단 조직하여 중국 관내 및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를 모색하여 갔다. 1917년에는 신규식·조소앙 등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을 통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1919년 육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한국민노동동맹단을 조직하여 국내의 거족적인 독립운동에 호응하여 갔다. 특히 65세의 노인동맹단원인 강우규(姜宇奎) 의사를 파견하여 1919년 9월 2일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게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지게 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그 해 9월 통합 임시정부 발족에도 기여하였으며, 임정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발행 및 독립운동사료 편찬 작업 도맡아 수행하였다.

특히 이 시기 선생은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아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집필을 시작하여 이듬해 간행하였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는 1884년 갑신정변부터 1920년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까지의 일제 침략에 대한 한국 민족의 독립투쟁사를 3·1운동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임시정부의 정상화를 꾀하였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만든 후 이상룡 국무령 추천, 스스로 사임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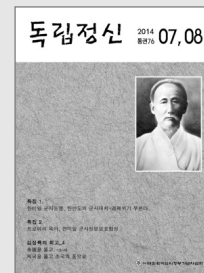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정신

2014 7*8

통권 76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표지사진 | 백암 박은식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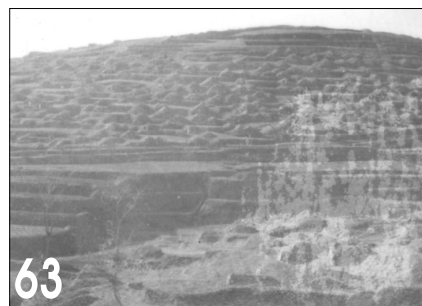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_국가개조라는 홍두깨
| 임 현 영



07 특집_1한미일 군사동맹, 한반도의 군사대치
- 경제위기 부른다
| 이 부 영



16 특집_2트로이의 목마,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정 욱 식

25 김정록의 회고_帝國을 뚫고, 19/45
4. 제국을 뚫고 조국의 품으로
| 김 정 록

50 특별기고_1조선인 해외 강제이주의 사력(史歷)
| 김 삼 웅

57 특별기고_2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 안 태 근

64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10
항일독립운동가 이경채(李景采)의 생애 연구
: 광주학생운동에서 광복군투쟁으로
| 김 홍 길

74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군자금 모아 광복 꽃피운 “한영신”
| 이 윤 옥

76 영화읽기_음악가의 삶 <서창 포 슈가맨>과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 이 두 희

80 임정서가_유학자 조식의 수양방법과 이상정치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박환교수와 함께 걷다. 블라디보스토크
항일투쟁으로 산화한 애국지사 애일라
| 편집부

91 독립정신 이모저모



국가개조라는 홍두깨



임 현 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아닌 밤중에 홍두깨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고악한 시절 일수록 약자들이 자주 당하는 멘봉의 원흉이다. 민주적인 정치인은 유머 끼리를 많이 제공하는 반면 독재자는 홍두깨나 봉창 두드리기를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유머는 웃고 넘어가지만 봉창 두드리는 소리에는 꼭 용비어천가가 따라붙어 우상숭배의 찬미가를 요란하게 울려댄다.

창조경제, 통일 대박, 국가개조라는 술어는 가히 3대 홍두깨라 할만하다.

정치인을 찌뼌 재간을 갖춘 경제인들에게조차도 아지랑이처럼 아롱거리게 만드는 ‘창조경제’는 여전히 신기루에 불과한데, 그 메아리가 사라지려는 즈음에 ‘통일대박’이 등장했다. 냉전 가속화와 대북 증오심의 조장을 권력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처지로서는 강대국의 무기상에겐 대박이겠지만 우리는 쪽박 처지나 다름없다는 걸 입증시켜 준 게 작금의 대북정책이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대도 대박은 우리의 차지이기 보다는 4강국의 몫이 될 우러가 날로 커져가고 있을 뿐이다.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의 허황된 마각을 드러낸 세월호의 트라우마에 대한 처방전으로 불쑥

내민 홍두깨가 ‘국가개조’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실로 세월호에 못지않는 초대형 멘봉 술어다.

역사를 개혁하는 데는 혁명과 개조가 있다. 혁명이 국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진보적인 개혁 작업이라면 개조란 집권자의 강제력을 집행하려는 독재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일본 정치사에서 차용했던 ‘유신’이란 술어처럼 ‘국가개조’ 역시 상기하기조차 끔찍스러운 저 파시즘의 음습에서 움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형 언도로 폐기된 금기어의 하나다. 개조라니!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뜯어 고친단 말인가.

키타 잇키(北 一輝)가 “좌익적인 혁명에 대항해서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쓴 <<일본개조법안대강(日本改造法案大綱)>>을 출간한 건 1923년이였다.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를 주창한 이 저서는 천황을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3년간 헌법을 정지시킨 채 계엄령 아래 국가를 개조할 것을 주장한다. 사유재산은 한 가구 당 300만 엔(현 30억 엔)으로 제한하여 그 이상은 국가가 환수하며, 노동쟁의나 파업은 일체 금지다.

조선이나 대만은 독립할 자격이 없기에 일본이 통치하고, 오스트렐리아나 시베리아까지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러시아와 전쟁도 불사한다는 등 천황제 제국주의 파시즘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 우익의 정통 교과서다.

말은 씨가 된다.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한 육군 황도파(皇道派) 청년장교들이 1936년에 일으킨 2.26쿠데타는 박정희가 주목하여 5.16쿠데타에 참고했던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비록 3일천하로 끝난 불발 쿠데타였지만 그 정신은 일본 현대사의 귀태로 잉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들이 추태나 망언이라고 비판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적인 각종 언행은 그 사상사적인 배경으로 따져보면 냉혹하게 계산된 투철한 신념의 발로이다. 사과나 발언 취소 따위로선 전혀 고쳐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골수 깊이 내장된 이데올로기의 발로이다. 사과만 하면 당장이라도 역사가 바뀔 듯이 착각하지 말자. 귀태 정치인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

2014년 5월19일 청와대 발 ‘국가개조’에서 왜 하필이면 일본 정치사의 귀태 이데올로기가 연상될까.

민주 사회라면 나라를 개조하는 데는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아니면 쿠데타로 강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도 취임 할 때는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

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대통령도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지 ‘국가 개조’를 자행할 권리는 없다.

세월호의 상처를 아물게 하려면 현행법과 현행 정부기구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구태여 나라의 기본 틀까지 바꾸겠다는 저의는 무능을 탄압으로 대처하겠다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국가개조라는 저 녹슨 일제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로 창조경제나 통일대박을 이룰 수 있을까? 창조경제나 통일대박이 홍두깨이듯이 국가개조도 결국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곧 역사의 메아리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한반도의 군사대치 - 경제위기 부른다



이 부 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5년 내년은 해방된 지 70주년 되는 해다. 또한 한일협정이 맺어진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1945년 일제가 패망하여 쫓기면서 “20년 뒤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불길한 다짐이 실현되는 것 같다고 해방 당시를 경험한 분들이 회고했다. 50년이 흘러 이제는 일본군을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게 만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지금까지 한일 간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과거사 왜 곡과 침략전쟁 정당화, 영토분쟁 등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되풀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의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집했고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쟁의 근본원인이다. 그 근본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 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안이 되어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동맹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군사적 대역으로 등장시키려는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위험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5-26일 한국을 방문한데 이어 7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 지구적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이 두 강대국 영향력이 맞부딪치는 현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가 지난 방한에서 요구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요구에 대해 시진핑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을 요구한다.

미국과 중국의 G2체제로 세계가 바뀌고 있고 그 대결의 핵심적 지역이 동북아시아이고, 그 접점이 한반도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몇 차례 전기(轉機)가 있었다면 1948년 정부수립, 1953년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2000년 6.15 남북정상선언 등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성립된다면 위의 주요 계기와 버금가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수립으로 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이 동서 냉전에 따른 분단 대결의 냉전시대였다면 2000년 6.15선언 이후의 시대는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시대가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의 결성은 이념이 아닌 세력대결의 신냉전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에서 이 시대는 또한 화해협력을 통한 냉전 잔재의 해소, 평화 공존의 가능성이 멀어지고 대결과 전쟁의 공포시대로 전환할 것인지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기조는 대결과 대화를 반복할 수 있지만 접점인 한반도에서는 긴장과 대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지난 70년 동안 전쟁과 긴장과 정전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미-중 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한-미-일 군사동맹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의 중대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의 정당화,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에게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탈냉전시대에 세계의 주요 교역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에서는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미국은 미국의 군사비 감축에 따라 재무장의 길을 걷는 일본을 미국의 대역으로 등장시키려는 정책을 한국 등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최근 동아시아 방문의 목적은 온전히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할애되었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방일시 오노 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 만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정식 통고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다가 막바지 단계에서 국내의 반발로 취소한 적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윤희 합참 의장은 지난 3월 마틴 텀프시 미 합참의장과 회담 직후 한-미-일 안보 공조가 필요하며 일본과도 발전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일본 중의원의 평화헌법개정 없이 헌법9조를 무력화시키듯이, 한국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양해각서(MOU) 상호교환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 책임자들의 발언과 준비과정을 종합해보면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은 이미 3국 군부 내부합의를 끝내고 발표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모든 과정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침략전쟁의 정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3국 안보동맹의 발효를 위한 주요한 계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실현됨으로써 헌법 9조가 무력화되듯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국의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고 양해각서 형태로 발효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 21일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도 회원국인 CICA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면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아시아인들은 협력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안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주권과 독립, 영토 안정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 등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과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를 존중-고려해야 한다면서 “제3자를 겨냥한 군사동맹 강화는 지역의 공통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아시아 문제 개입을 강화하려는 미국을 겨냥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요한 군사적 변화를 가져온다.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안보협력기구의 제안은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에 대한 대응이

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봉쇄하려는 아시아회귀정책이 불러오는 군사대결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에는 아래와 같은 후속결과를 부른다.

첫째,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했다. 그러나 3국 안보동맹에서의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 육해공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로 바뀐다.

둘째,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 따라 동맹국인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일본군으로 하여금 미군의 대역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일본군에게 인계될 것이 예상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국 측이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발언권은 전시나 준전시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미일 동맹의 한 당사국인 미국의 요청만으로도 일본군은 미군을 돕기 위해 한국에 진주할 수 있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에서 불러올 파장도 클 것이다.

셋째, 전시 작전통제권의 행사가 문제된다. 작전권 이양이 지연될 경우, 현재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는 불가피하게 3국군 연합사령부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일본군의 규모를 증대할 경우 작전통제권의 행사가 일본군에게 이양될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국 측에 작전권이 환수될 경우, 북측에 오히려 압박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3국 군사동맹은 한국을 중국에 적대하게 하는 한편,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하는 것은 물론 한국군이 일본군의 작전지휘권 아래로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3국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추진은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입장을 가지더라도 정부 여당 안에서 저항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관료, 학계 주류의 입장이 그렇다.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여당의 일각이 함께 초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내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박해야 한다. 야당 지도부는 외교안보 문제,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 성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사동맹 추진세력에 대한 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삼각 군사동맹추진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박근혜 정부도 위기를 맞겠지만 나라 전체가 상시적 전쟁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한-미-일 군사동맹, 한국경제에 위기 부른다.

현재 한국의 처지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치우쳐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회귀를 천명하고 대 중국 압박정책을 현실화하자 가장 곤혹스러워진 나라가 한국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에 안보를 의존해온 한국은 1990년을 전후해서 탈냉전 추세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과 교류를 비약적으로 증진시켜왔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꾸준히 증가한 한-중 교역량은 2013년 말 미국-일본의 교역량 합계의 1.5배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 중국과의 무역흑자로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메우고 중동으로부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진전에 한국 대기업 긴장한-미-일 군사동맹의 발걸음이 빨라지자 한국의 대기업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두산, SK 등 대기업들은 중국에 수십억 달러씩 투자한 대규모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국 안보동맹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한국 대기업의 생산시설 뿐 아니라 관광 문화교류 농수산물 교역 등 다른 분야의 중국 관련 기업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 방송 어느 한 곳에서도 한국 대기업이나 관광업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해하는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 누가 보도통제를 해서도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사실에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도 두렵고 중국도 두려울 따름이다. 이 ‘양들의 침묵의 카르텔’ 이얼마나 지속될는지 의문이다.

철도-가스관 DMZ 통과 한반도 긴장완화 필수, 미국 반대에 난관 중국과 러시아는 중부 시베리아의 코빅타와 북부 시베리아의 차얀다 가스전으로부터 중국의 동북3성과 베이징을 거쳐 산둥반도에 이르는 4000km의 가스파이프라인을 완성할 총액 4,360억 달러의 계약

에 합의했다. 지난 5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동안 시진핑-푸틴 사이에 최종 타결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앞으로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매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한반도로부터 서해 넘어 315km 전방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터미널이 들어서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러 파이프라인 협상에 참여하도록 제의했으나 한국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되는 가스의 가격은 가스운반선 가격보다 30~40% 싸다. 만약 한국이 산둥 라인에 참여할 경우 산둥-인천-평양 라인을 구축, 북한에 에너지 공급의 지렛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규슈지방 가스 공급에 한국을 경유한 가스관을 활용하게 되리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아직 군사분계선(DMZ)의 벽에 막혀 실현가능성이 멀어 보이지만 블라디보스토크-원산-속초 라인도 한국에게는 살아있는 카드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원유와 가스를 공급해오던 미국계 국제에너지 대기업들과의 독점적 거래를 도외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일이어서 그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의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통과, 그리고 산둥-인천 라인의 서해 해역 통과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필수조건이다. 기존의 에너지 공급선에게는 새로운 공급선이 등장하는 것은 판로를 상실하거나 가격경쟁력을 잃는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안보를 장악함으로써 독점적 공급을 누리던 미국계 에너지 업계에게는 불리한 사태 전개다. 동아시아에서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요공급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체제보전을 위해 핵보유와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를 동원, 북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면서 6자회담 개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비축과 고도화가 진행되는 사태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 1990년 이후 탈냉전시대가 오면서 동북아의 신흥 교역국 한국은 비약적인 면모를 과시했다. 비단 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류와 스포츠, 국제평화 기여도에서도 그동안 한반도를 옥죄었던 사슬을 풀어놓기라도 하듯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다. 한반도가 긴장완화의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 여줬다고 평가된다.

다시 미국-중국의 신냉전 시대가 오려고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성립될 경우, 한반도 분단을 다시 고정시키고 대결과 전쟁위험을 상시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만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고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터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 요구받고 있다.

다만 일본과 북한 간의 납치자 문제해결을 앞세운 협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가 동북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납치자 문제를 고리로 일본-북한 간의 국교 정상화협상 그리고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협상으로까지 진전될 경우 북한핵에 대한 제재 전선에는 균열이 생기면서 미-일, 한-일, 중-일 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린 양자가 서로 접근하여 고립을 극복하려는 사례가 될 것 같다. 동아시아 국면을 새롭게 전변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활로이다.

당초 한국인의 기대와는 달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문제에 매달려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의 보유량 비축과 고도화가 불길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은 개최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무시당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갔고 한반도 위기는 일본의 재무장-극우정권의 등장의 구실로 이용되었다. 2011년에 천명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은 중동으로부터 철수하는 미 군사력을 아시아에 재배치하려는 전략이었고 경제-군사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가두려는 정책이었다. 그 군사전략의 현장 맞춤형이 일본의 재무장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비록 중국이 아직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사회체제가 서방과는 다르지만 사회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이상 이념이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적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적대하는 이유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군사강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봉쇄하려는데 있다.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냉전시대의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을 군사동맹으로 다시 결속하려는 데 무리가 따르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과거사왜곡 문제와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비록 분단되어 있었지만 1990년 이후 탈냉전시대에 분단국의 불리한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 단시일 안에 세계 유수의 교역국으로 성장하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등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진출하여 시장경제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진영에 묶여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불안전한 관계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대륙과 해안에 걸쳐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다시 빼앗기고 지난 4반세기 동안 쌓아온 무역 중계항의 위치를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

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인에게는 1910년의 일제의 식민지배 강요와 1945년의 분단 강요나 다름없게 받아들여진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에는, 특히 두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에게는 외교전이 집중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비슷한 간섭과 대결이 전개되었던 1900년 전후의 대한제국 말기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와는 달리, 비록 분단은 되어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울 국제정치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조심스럽지만 강인하게 제기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세력균형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공간의 기회에 아래 10가지 선택 가운데 몇 가지라도 실현해야 할 것이다.

- *1.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는데 기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한다. 더 이상의 적대세력을 상정하는 군사동맹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 *2. 한국전쟁에 따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교전 당사국 협상에 착수한다.
- *3.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량 비축과 고도화를 저지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6자 회담을 시급히 재개한다.
- 4. 일본이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않고 과거사를 왜곡하며 침략을 정당화하는이상,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 협력도 거부한다.
- 5. 동맹국 군대인 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어떤 형태의 군사 조치에도 반대한다.
- 6.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에 정상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할 때라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 한미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한중,한일 FTA에 적극적으로 협상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중계무역지대로서 전망을 가지고대응한다.
- *8. 6·15, 10·4 남북정상선언의 연장선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남북대화는 정상화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이산가족상봉은 확대 발전시킨다. 그를 위해 5·24 대북봉쇄조치는 해제한다.
-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 9. 중국-러시아의 시베리아가스 공급합작사업인 산둥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은 중국 측과 참여문제를 협의한다.

- 10. 러시아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블라디보스토크-월산-속초 가스파이프라인의 DMZ 통과 문제를 논의한 다.

*1, 2, 3, 8항은 지금 바로 착수해야할 필수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되어 우려된다.

맺음말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 중국대결정책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깊이 연결되어있다. 한국은 또한 일본과는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로 분쟁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이어갈 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 중국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급속한 통일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웃 나라들의 불안과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큰 만큼 남북 평화공존과 동아시아 평화경제공동체(경제연합)를 추구해나갈 것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 한국내의 어느 정권이든지 ‘통일’을 내세울 경우 국내외의 갈등과 대립만 불러일으킨다. 

트로이의 목마,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 옥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의 10년 전쟁 막바지, 그리스의 전략가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건축가인 에페이오스에게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를 만들게 한다. 그리스 병사들은 철수하는 척 하면서 인근 섬에 주둔하고는,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를 ‘그리스가 철수하면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며 트로이의 성 안으로 들여보낸다. 전쟁이 끝난 줄 안 트로이인들은 목마 주위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긴다. 이들이 술에 취아떨어진 사이, 목마 안에 숨어 있던 그리스 소수정예부대는 공격에 나서고 인근 섬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성안으로 대거 몰려든다. 전쟁은 이렇게 끝난다.

이게 신화 속에 이야기라면, 현실 속의 ‘트로이의 목마’도 있다.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이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행하면 악성 코드를 실행한다. 그래서 붙은 이름이 ‘트로이의 목마’이다.

한국 땅에도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오고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방침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일 3국 정부와 보수적 전문가들은 이 목마가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한국의 국익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괴물’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일 정보 공유의 1차적인 의도는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에 있다. 한미일 MD가 강화될수록 한반도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 한중관계도 파탄을 면하기 어렵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뭉치면 북중러도 뭉칠 공산이 크다. 그 결과는 식은 땀 나는 신냉전이 될 것이다. 또한 세 나라가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한일 간에도 낮은 수준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이고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게 된다. 이게 과연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두 가지 ‘꼼수’

한미일 정부는 두 가지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미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미 한미, 미일간에는 군사협정에 체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일간에만 체결하면 3자 군사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거부감이 대단히 크다. 이걸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회와 국민 몰래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시에 입증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을 끼워넣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인들의 반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말이다. 실제로 한미일 3자 협정 체결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때보다 훨씬 덜하다. 꼼수의 잠정적 효과이다.

또 하나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추진기로 한 것이다. 조약이나 협정 형태로 추진하면, 국회의 동의 필요성이 커진다. 국회 동의 과정에서 협정문도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론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당시에는 이랬다. 반면 국가간의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하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중요한 게 또 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는 2009년부터 밀실에서 논의되어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일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의 일부를 보자.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 사령관은 2009년 7월 16-17일 도쿄에서 열린 차관 보급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 U.S.-Japan-ROK 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¹⁾ 특히 주일 미국 대사관이 3자간의 정보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선도적 조치(precursor)”라고 평가했다. 3자간의 정보 공유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3자 정보 공유 및 MD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걸까?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측 수석대표인 마이클 쉬퍼(Michael Schiffer)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 속에 그 답이 담겨 있다. 그는 북한의 향후 도발은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괌을 겨냥할 수 있다”며, 3자 대화에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상기 국방부 정책실장은 “쉬퍼의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한국을 겨냥한 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때 다 싶었던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략기획(J-5) 참모장 랜돌프 알레스(Randolph Alles) 중장은 2009년 12월 9일 하와이 인근에서 예정된 MD 실험에 한일 정부가 참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 실장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²⁾ 실제로 한국은 움저버 자격으로 이 훈련을 참관했고, 이듬해부터는 미국과 함께, 2012년부터는 한미일 해상 MD 훈련을 해오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미국은 ‘한국-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괌’은 사실상 단일 전장권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리고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그리고 괌이 공격당하는 시나리오는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제기한다. 그래서 한미일 3자 MD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3자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논리에 말려들고 있다.

1)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9tokyo1879>
2)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9tokyo1882>

미국, 3자 MD로 가자! 환영하는 일본, 편입되는 한국

3자 안보 토의(DTT)에서 한미일 3자 MD 및 정보 공유 필요성을 확인한 미국은 공개적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2010년 9월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Frank Rose) 부차관보는 한-미-일이 MD를 함께 하면, “정치적으로는”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간 정책 협의가 가능해지고, “운용상으로는” MD 시스템 공유를 통해 작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중복투자를 줄여 비용 절감형 MD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펜타곤의 핵·미사일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인 브래들리 로버츠(Bradley H. Roberts)는 2012년 3월 12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일본·호주 및 일본·한국과 3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MD는 이들 대화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다. 이러한 3자 대화는 MD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안보를 강화하며 동맹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³⁾ 2주 후 매들린 크리던(Madelyn Creedon) 국방부 글로벌 전략담당 차관보도 ‘유럽 MD’와 흡사한 지역 MD 시스템을 아시아와 중동에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는 한-미-일과 미-일본-호주 두 축으로 3자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⁴⁾

이명박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2012년 5월 들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은밀히, 그러나 전광석처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다. 여론의 못매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이 협정 체결을 유보기로 했다. 그리고 8월 중순 ‘친일’ 혐의를 씻기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기습 방문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과 MD 사이의 관계를 한사코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정통한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닝(Jeffrey W. Hornung)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비밀보호

3) <http://armedservices.house.gov/index.cfm/2012/3/fiscal-year-2013-national-defense-authorization-budget-request-for-missile-defense>
4) Reuter, March 26, 2012.

협정은 (한-미-일) 3자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⁵⁾

2012년 한일 군사협정 체결 무산으로 주춤하던 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은 2014년 들어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요한 출발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선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3월 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오바마는 3자간 군사적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MD를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의 제안에 따라, 4월 중순에는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DTT는 MD를 고리로 삼아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는 은밀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된다. 이 회의에서 한미일은 MD 협력 강화 및 이를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직접 나섰다. 4월 하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3자간 MD 및 정보 공유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은 것이다. ‘회담 결과는 문서가 말해준다’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다. “MD의 상호운용성 증대” 및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가 바로 그것이다.

뒤이어 오바마와 아베는 각자 중요한 국내적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군사동맹 설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최측근인 마크 리퍼트를 주한미국대사로 내정했다. 아베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리퍼트 내정자의 핵심 임무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적인 목표가 미일동맹 일체화 및 한미일 MD에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에 더해 5월 22일 미 하원은 2015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MD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법안 발효 뒤 6개월 안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세 나라는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보도문’을 내어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 나라는 정보 공유를 3자간의 양해각서 형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그룹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MD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미국과 일본은 MD를 같이 하자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아니라고 한다. 국방부 설명이 맞다면 미국과 일본이 5년째 한국을 꼬드기면서 정보 공유 협정을 갈망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3자 군사협정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정보를 서로 나누자는 것이다. MD의 성패가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추적하는데 있는데, 이게 MD가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MD-집단적 자위권-한미일 3각동맹의 연결고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그리고 꿈틀거리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MD와 집단적 자위권이다. 일본 우익이 집단적 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데에는 MD가 핵심 배경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 기지 및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도 단일 전장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자.

당초 일본은 MD와 집단적 자위권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일례로 2003년 12월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일본의 MD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MD는 오로지 일본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3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었다. 일본 MD는 전수방위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2006년 1기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일본은 MD 정책을 미국 방어용으로 방향을 선회키로 했다. 2006년 11월 27일자 주일 미국대사관의 일본 동향 보고서의 기술 내용이다. “아

5) JEFFREY W. HORNUNG, Lost chance for Tokyo-Seoul security relations, The Japan Times, June 18, 2012.

베는 미국 영토와 자산을 보호할 군사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위대 스스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실(집단적 자위권 불허 의미)은 양자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는 주로 자위대가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군을 겨냥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의 출발점은 MD이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해공군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MD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이를 군사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아베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베 1기 정권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다. 2008년 1월 25일자 주일 미국 대사관의 외교전문은 일본 방위성의 이시바 시게루 장관과 마수다 고헤이 차관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내용을 기록했다. 이 자리에서 시게루는 “일본은 곧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그 핵심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만약 미국이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고 일본이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동맹은 깨지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해 앨런 타우서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국민은 일본의 MD 체제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길(one-sided)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 MD가 미국 방어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시게루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⁷⁾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일동맹은 세 가지를 추진해왔다. 첫째는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SM-3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까지 가능하도록 개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까지 개정하면서 미국과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둘째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

6) <http://www.cablegatesearch.net/cable.php?id=06TOKYO6736>

7) http://www.wikileaks.org/plusd/cables/08TOKYO203_a.html

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끌어들여 한미일 3자 MD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일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미사일방어체제(MD)를 비롯한 미일동맹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2013년 8월 2일에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미일관계 보고서에 담긴 아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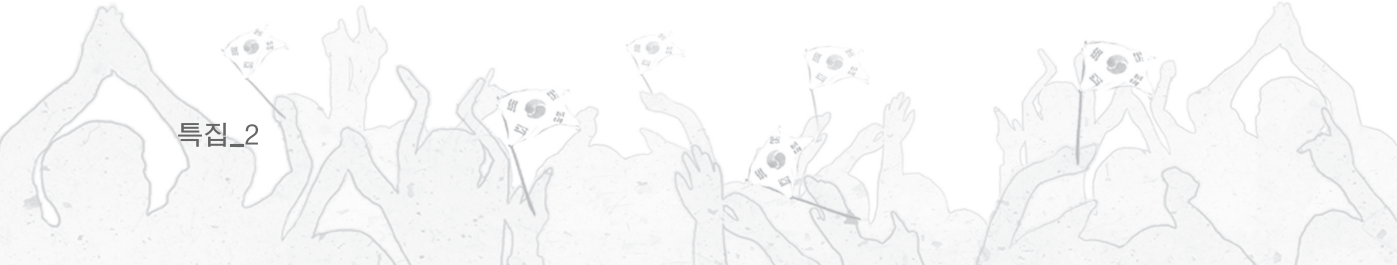
“미국과 일본이 점차적으로 MD 협력을 통합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적 자위권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은 일본 사령관들로 하여금 피격 당사자가 미군인지, 일본인지를 판단하는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헌법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받더라도 일본군은 대응할 수 없다.”⁸⁾

2013년 6월 24일자 CRS의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통합된 MD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제도화된 집단안보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MD를 하면 한미일 3자 동맹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일 MD가 북한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사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미사일 요격도 시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⁹⁾ 미국이 북한을 구실로 삼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과 MD와의 관계를 추적해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정서적 거부감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일동맹의 집단적 자위권 구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MD 체제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동맹에 제공하거나 요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일본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꾸로 일본이 한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격을 시도하는 것 역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집단적

8)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2884.pdf>

9) <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11800.pdf>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필자가 출간 ‘한미일 3자 정보 공유 및 MD는 3각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을 무력화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선물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안 돼!’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帝國을 뚫고. 19/45

4. 제국을 뚫고 조국의 품으로



김 정 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김상덕 선생 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는 1987년 민주혁명으로 선출된 새 국회에서 그해 10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나라의 법통과 이념을 명시한 헌법 전문 부분이다.

네 번째 이야기 “제국을 뚫고”를 읽기에 앞서 이 헌법 전문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45년 봄, 개학이 되자 학교에 찾아온 민혁당 어른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일요교실을 빌리더니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교육을 시작하였다.

일제 패망이 목전에 왔다고 본 임시정부는 제나라 말과 글을 모르는 2세 교육을 서두른 것이다. 흑판에 쓴 이상한 글, 이상한 소리, 서툰 발음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 담당 윤기섭 선생은 이 한심한 초짜들을 붙잡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단 생판 처음 드는 소리가 웃겨가지고 여기저기서 킁킁대느라 교실이 어수선했데도 사

람 좋은 윤기섭 선생은 노는 날에 나와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기특해서 귀엽게 보고 참는다. 이 때 배운 한글이 귀국해서 복교하는데 도움이 컸다.

이즈음 임시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긴한 정책을 바쁘게 추진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9일, 임시정부 문화부장으로 입각한 아버지 김상덕은 2세 교육에 비중을 두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1945년 3월 25일, 의정원(지금의 국회에 해당)에서 문화부 예산 편성 및 업무 보고 차 단상에 오른 아버지는 영국 유학생 파견 및 다른 구미 각국 유학생 파견을 교섭 중이라 보고하고, 화영대사관(華英大使館)문화담당관으로부터 약간 명의 유학생 파견이 가능하다는 회답이 왔고, 타 공관 역시 실현가능하다는 업무 보고를 하면서 2세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던 임시정부의 가난한 형편으로 볼 때, 파격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길이 고달팠던 아버지는 배우려는 청년학도를 돕고 싶어 했고, 영재양성이 곧 국익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문화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 무렵 조국 해방이 임박했다고 본 의정원에서는 주목할 만한 안건 하나가 의제에 올랐다. 1945년 4월 15일 오전 9시, 의장 홍진은 장건상 의원에 대한 장기청가(長期請假)건을 상정한 것이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안건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했던 아버지의 처신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처결과정을 쓰고자 한다.

의장이 청가안건을 상정하자 엄항섭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준허동의를 했고 뒤이어 김구 의원의 재청과 조완구 의원의 3청이 이어졌다. 당시 의정원은 주석을 비롯한 각료와 국무위원도 의원에 당선되면 의원의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의정을 논의하는 전시 비상사태에 따른 운영체제였다.

그러자 안훈 의원이 장기휴유(長期休由)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장에게 구두로라도 이유를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의사 진행 중인 홍진의장은 다만 어디로 간다는 것 외에는 들은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이것이 자칫 이상기류로 변할 수 있다고 본 김구 의원은 다시 발언에 나서 장건상 의원이 떠날 때 공무 차 떠난 것이 사실이어서 재청한 것이라 부연 설명을 했고, 이어서 조완구 의원은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청가하는 이에게는 청가하는 것이 좋다는 준허의견을 재차 제시하게 됐다.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김구, 조완구, 엄항섭 의원의 삼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지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애매모호한 재청, 삼청으로 본 아버지 김상덕 의원은 발언에 나서 공무 차 청가한다고 하나 무슨 직무로 어디에 가는 것인지 청가휴유 사정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 그 청가 준허가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엄항섭 의

원은 개인일로 가는 것이 아니란 게 사실이니 청가를 준허하는 것이 좋으며 재차 동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자 박건웅 의원이 발언에 나서 그 사유가 자격에 맞지 않으면 징계에 부치면 되는 것이니 일단 청가를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면 찬동 쪽으로 의사를 보였다. 토론 추세를 보면 의원 대다수가 찬동하는 분위기였으나 아버지는 굽히지 않았다. 다시 단상에 오른 아버지는 재차 반대 발언을 하면서 의원에게는 의회 출석이 중요한 일이며 의원의 어떤 임무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며 의회에 출석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청가를 할 수 없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찬반 격론이 계속되자 홍진 의장은 본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청가건은 가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장건상 의원은 아버지와 소속이 같은 민혁당 간부로서 같은 소속이 반대하여 여당이 감싸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장건상 의원의 장기청가는 공무가 사실이었고, 임무 또한 막중한 것이었다. 일본의 패망이 임박해지자 임시정부 산하에 공산계에서도 동참하도록 설득 차 공산계 본부가 있는 연안으로 장건상 의원을 밀파한 것이었다.

통일된 임시정부의 모습이 절실했던 임시정부는 이 계획이 드러나면 성향이 다른 반대 공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구 주석과 조완구, 엄항섭 등 극히 한정된 일부 국무위원에 의해 추진했던 공무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아버지는 공과 사의 엄격한 잣대로 같은 소속의 동지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집 가정사로 볼 때 자식들의 험한 섭생을 아버지가 왜 몰랐겠는가. 그리고, 어느 부모가 어린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고 싶었겠는가. 아버지는 통절한 마음으로 대의(大義)를 선택한 것이 역연했고, 당시 우리의 국운으로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의 길이요, 운명이었다고 나는 본다. 이것이 극히 일부 매국 친일 망종을 뺀 우리 국민 모두가 유형만 다를 뿐 조국이 위난에 처했을 때 겪은 약소국가의 비애였으며, 역사가 흘린 눈물이다.

중경 특유의 무더위가 대지를 찌대는 한 여름날, 손가화원에서는 난데없는 만세소리가 양팡즈를 뒤흔들고 있었다. 어른들은 모두 뛰쳐나와 어울려 춤을 추면서 평평 울고 있으니 꼬마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구축한 난공불락의 대동아 철옹성이 뚫린 것이다. 아세아 전역을 들쭉시며 침탈의 야수를 뽐낸 거대성벽이 뚫린 날이다.

연합국의 강력한 화력에 뚫렸고, 일제 침탈이 시작된 이래 36년에 걸쳐 국내의 수많은 독립운동 공구(工具)가 뚫고, 2.8독립, 3.1운동 공구가 뚫고, 임시정부 공구가 뚫어서 명멸하는 조국의 운명을 살려낸 날이다. 이 조국을 지금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역사를

비트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일제가 짓밟은 이 나라를 그들이 근대화시켰다며 미화찬양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일제가 쳐들어온 이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는 우리의 삼 천리 금수강산이 일본의 역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해방정국 3년은 누구의 나라인가. 이 나라가 사라졌다는 말인가. 미국의 역사? 미 군정기간이었으니 미국의 역사라고 강변할 수는 있을 테다. 해방정국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본 요건인 영토, 국민, 국방, 국가 기구를 갖춘 엄연한 대한민국으로 존재했다. 국토방위는 국방경비대가 맡고 치안은 민주경찰이 국토 전역의 안녕과 질서를 맡았다. 과도 입법의원들이 운영되어 법이 제정되었으며 여기서 제정된 법에 따라 총선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 전후의 세계질서는 전승국 영수들이 회담하는 선언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이것이 국제 규칙이었다. 1943년 11월,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이 임박해지자 연합국 미·영·중 영수가 카이로에서 회합을 하고 “한국인이 노예 상태에 놓여있음을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36년에 걸친 국내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인정한 것으로써 영국의 식민지를 독립 투쟁했던 오늘의 거대 인도국가의 지도자 네루도 유일하게 독립을 보장받은 한국을 부러워했었다.

미군정이 실시된 것은 대한민국을 점령 장악한 것이 아니나 영수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선언에 따른 것이었고 민주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를 민주 토대에 적합하도록 취한 적절한 절차 일환이었으며 민주 과외 교습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미군정은 일방적인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사의 상당수를 고위직에 참여케 했다 이를 불완전 국가로 본다면 1948년 7월 20일, 이 박사가 대통령에 선출된 시점 역시 국회뿐인 불완전국가에서 출발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이 헌법은 제헌국회에서 선출한 대통령인 이 박사가 세계만방에 선포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다시 1987년 10월 국민투표로 개정할 때 법통과 이념이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특정인 한 사람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 나라의 근본을 엮으려 하고 역사를 자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되돌아 보건데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유난히도 외침에 많이 시달려왔다. 중국은 끊임없는 자중지란 속에 패권이 피고 졌고, 그 때마다 승자는 우리나라에 쳐들어 왔다. 몽고의 무지막지한 침략도 겪었고, 러시아도 집적거렸으며 일

본은 수도 없이 우리를 괴롭힌 나라다.

이런 외침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산천은 망가지고 백성은 모진 세월에 다치고 일본 땅에 우리의 코 무덤이 쌓였지만 그래도 우리의 끈질긴 역사는 이어왔다.

제국을 뚫기 위해 우리의 모든 독립공구가 총칼에 맞서 지켜온 역사를 어디로 보내려 하는가. 침탈의 흔적을 근대화로 찬양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거리 하나가 생겼다.

지금 일본 경제는 그들이 구가했던 고도성장이 멈추고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역대 총리가 나섰으나 실패하고 아베가 나섰다. 그는 평화헌법을 뭉개면서 변칙통치로 경제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자 신(神)을 찾았다.

급한 마음에 앞뒤 생각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가 국제적 망신과 곤욕을 당하자 요즘은 딴 곳에 모신 신을 찾아 그 곳에 높은 머리를 돈수백배 조아리고 국운융성을 빌고 있으나 소용이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은 선자(善者)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 심보가 고약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 뻔하니 하는 말이다. 그토록 일제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일본의 경제가 난국에 허덕이고 있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보은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일본 근대화를 신봉하는 당신들이 일본과 교섭에 나서라.

우리는 36년까지 갈 것 없이 3년 6개월이면 그들의 국민 총 생산을 배로 끌어올려주겠다. 음흉한 통치를 즐겼던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화통하게 계획을 밝히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은광채굴이다. 왜 은광을 첫 과업으로 삼는가. 일본을 군사 강국으로 키워서 아세아를 화염의 불구덩이로 지핀 원초적 발단을 은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외화 빈털터리 경제 빈국 일본은 해군력이 미미한 초기 때 해양강국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함정거래를 은으로 했고, 해군 강화를 위해 은광을 캐는데 전력투구했었다. 은이 침략의 힘을 키운 원초적 수단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훗날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 발틱함대를 격파하고 일약 열강 반열에 발돋움해서 침략의 야망을 품게 했다. 일본 통치는 이런 그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당연히 무장을 완전 해체 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다행히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 가용 노동력이 탄탄하다. 이 노동력을 일제 때에 했던 것처럼 끌어들여 광산에 집어넣고 회초리로 닦달하면 많은 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니 우리나라에 실어오고, 내친 김에 금광, 철광, 탄광 등 일본의 부존자원을 싸그리 뒤져서 캐오면 생산성 제고가 절로 되면서 우리의 산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때에 석유 설움을 톡톡히 맛 봤고, 이것이 패전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석유 개발에 쏟아 부어 마침내 채유에 성공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 기름은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밤낮없이 뽑아서 전량 실어오면 된다.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생산성

제고에 두어 독하게 죽치는 통치를 할 것이다. 물론 저항세력이 나온다고 본다. 그러나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일단 개 패듯이 패서 겁을 준 다음 전기 고문, 물 고문, 압슬고문, 고춧가루 고문 등등 왕년에 그들이 우리에게 써먹고 또 우리도 그 간에 개발한 기술도 있고 하니 이 기술을 총 동원해서 물고를 내면 어렵잖게 기강은 잡힐 것이다. 만약 그래도 덤비는 자가 있다면 그 때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면 된다. 지난 날 군왕 통치 시대에 역모죄를 다스렸던 악명 높은 능지처참이란 카드를 꺼내 그 중에 가장 질이 좋지 않은 한 놈만 골라 공개적으로 시범을 보이면 등골이 시려서 더는 덤비지 못할 것이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사고가 나던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일본이 저지른 짓으로 덮어 씌워서 죽창으로 다스리게 하면 흥흥한 민심의 분노는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니 사태는 쉽게 수습된다. 일본은 섬나라여서 사면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어획량이 상당할 것이다. 최소 분량을 시혜용으로 남겨놓고 전량 들여와서 우리 우등 국민이 풍족하게 먹도록 하고 특히, 아끼바라 쌀 생산 지역은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와 직결 통로를 만들어서 굶지 않을 정도만 놔두고 싣고 들여와서 주부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주방을 운영하게 할 것이며, 청소년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쌀국수용으로 공급해서 행복지수를 드높여 주겠다.

일본 전역에는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와 대를 이어 숙달한 장인도 많을 것이니 강제로 들여오고, 문화 교육정책은 품위를 억제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모두 폐쇄해 버리겠다. 배부르고 머리가 트이면 덤비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며 총독 통치를 그렇게 했으니 최저 식량, 낮은 교육 선에서 틀어막아 그들이 보여준 통치 철학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 우리의 선정으로 끌어올린 생산성 제고로 일본 전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출 물량, 강제 집행 물량으로 기존의 물류 시설로는 턱 없이 모자랄 것이니 도로, 항만, 항공 등 모든 물류 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수탈의 통로를 사통팔달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근대화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화로 은혜를 갚은 것이 되고,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을 힘들게 부려서 올린 성과이니 우리에게 두고두고 감사 찬양하라.

그들은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도 모자라 신체를 훼손하였으나 우리 동방예의지국은 그런 야만적인 방식으로 일본 황태자비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일본의 영산(靈山)후지를 비롯한 산이란 산은 모조리 정상에 다시는 뽑을 수 없게 쇠말뚝을 깊숙이 박아 침략행위를 할 수 없게끔 기를 죽여 놓을 것이다.

이를 확실하게 하자면 이중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자고이래로 틈만 보이면 남의 땅을 훔치고 싶어 하는 도벽이 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진단해 보건데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다.

이 버릇을 바로 잡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통치기간 안에 이 고질병을 고쳐놔야 이웃 간에 평화가 있고, 세계가 조용해진다.

일본은 일제 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신사를 지어 영적침략도 병행했었다. 그래서 얻은 영적 힌트인데 일본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공서 창문을 모조리 없애는 것이다. 채광(採光)을 차단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옥일승천기운을 끊어버리면 세계 평화가 도래하고 일본 국민의 세상도 편안해질 것이니 이 또한 큰 은혜의 베품이 아니겠는가. 일본 통치 종료 이전에 반드시 끝마무리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우리나라 땅끝마을 마라도를 군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이곳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서 외인의 출입을 막아버리고 군 공시판에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크게 공시한 다음 공시 마감이 되면 지체 없이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고 군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통금을 풀고 마스크를 총동원해서 세상에 널리 알린 다음 이 때부터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 우기는 것이다.

일제 근대화 찬양자들이여! 당신들이 주장하는 근대화를 받아들여 보답하는 것이니 교섭해 보겠는가. 물론, 일본은 일언지하에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일제의 근대화 총독 통치를 우리가 원했던가. 이 일련의 일본 통치 시나리오는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일제시대 그들이 저지른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 눈에 보게 조망한 것으로서 당시의 우리나라 처지를 일본 실정에 맞춘 실제 상황으로 그린 조감도로 보면 된다. 일제는 결코 우리를 근대화 시키려 하지 않았다. 깨닫고 개명(開明)할까봐 교육기관을 전문학교 수준에서 막아버렸다. 그들은 근대화 시설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혈을 짜서 대륙 침공의 교두보를 구축한 것이다.

그래도 이들에게 세뇌당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짧은 소설하나를 써서 이해를 돕겠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단란한 가정에 강도가 쳐 들어왔다. 강도는 가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다음 재물을 몽땅 털고 달아났다. 다음 날, 하늘이 두려웠던지 빈소에 나타난 이 흉악범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 악어의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는 할 일을 다 한 듯 유유히 사라졌다. 이 소화(小話)는 보기에는 이게 뭐냐 싶겠지만 이 안에 일제암정 36년이 다 들어있다. 이런 배중사영(杯中蛇影)같은 흉악범의 범행을 덮어버리고 한 방울 흘린 악어의 눈물을 부각시켜 선행상을 주자는 것이 조국 근대화 논리다.

일제 근대화 논자여, 지금 조국의 늪렁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일제! 그들이 저지른 짓이 원인이 되어 우리나라가 분단되지만 았다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강에 있을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지혜요, 저력이요,

진면목이다. 조선 총독부가 계속 통치했다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세계 제일의 전자 산업도,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강자로도, 세계 최고의 건설 산업도, 세계를 멋스럽게 하는 패션도, 세계 정서를 아름답게 정화하는 K-POP도, 세계를 감동시키는 드라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들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전인미답의 아프리카 정글 속에 은둔해 살며 활로 부족을 지키는 수준의 세계 최약체 국가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일제의 조국 근대화 찬양이 얼마나 허황된 논리인지 이제는 느꼈을 것이다. 모르고 속은 사람을 빼면 0.001%도 안 되는 오른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지어낸 논리의 허구가 이것이다.

이 가상 시나리오가 바른 역사관 분별에 도움이 됐다면 더 바랄 것 없는 다행이라 생각해서 아낌없이 지면을 썼다.

일제 조국 근대화 논자에게 물겠다. “차우첸왕귀루(朝鮮亡國奴)!” 독립운동시절, 조국을 놓고 빼에 사무치게 한 이 욕을 먹어봤는가. 나는 어릴 적 이 욕을 수도 없이 먹고 나라 잃은 설움으로 가슴 아픈 상처가 깊이 베인 경험자다. 이 욕을 먹어 본 우리나라 사람은 조국을 향한 무한 사랑이 있고, 조국의 눈물을 아파할 줄 안다.

도도히 흘러온 우리의 반만년 역사가 유구한데, 외세에 시달리고 모진 풍파에 부대껴온 상처뿐인 여린 조국을 더는 흠집을 내지 말았으면 한다. 이 산하의 흠에 살고, 이 산하의 흠으로 돌아가는 인간이면 말이다.

우리는 수탈 경제의 찌꺼기를 얻느니 마포나루에 황포돛대 오가는 그런 풍경이 더 소중하다는 민심을 읽어보라는 거다. 비뚤어짐이 없고 아름다운 멋이 스민 깊은 철학. 감성이 교양으로 베어 나오는 학자의 품격. 이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황야를 달리는 돈키호테병 같은 허황함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게 그렇게 고치지 힘든 병인가. 그러나 고쳐야 한다. 이 땅에 대우받는 학자가 되려면...

그리고 하루 빨리 황야를 달리는 몽유에서 깨어나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은 만겁을 스쳐가는 덧없는 찰나의 인생으로 유장한 역사에 대드는 우의 삶을 멈췄으면 한다.

1900년대를 기점으로 제국의 성벽을 뚫기 시작한 것은 19년. 마침내 제국의 철옹성을 뚫은 것이 45년. 우리의 온 힘이 뭉쳐 장장 27년 만에 뚫은 험난한 공역(工役)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그 날,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모인 혁명가들은 노도 없고, 소도 없고, 여도 없고, 야도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로 열사 안았다. 검은 머리로 떠난 풍찬노숙의 독립운동 길에 백발이 되어 해방을 맞은老혁명가들은 몽매에도 그리던 조국 귀환을 서둘렀다.

손가화원에 있는 민혁명 가족들도 양팡즈에 모여 귀국 준비 하느라 부산하게 돌아갔다. 도원에서 달을 쫓던 친구도, 교실에서 아웅다웅하며 정든 학우들도 찾아와 석별을 아쉬워한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친구들, 천진천, 천이, 째다루, 구팡 등등 그동안 무던히도 우리를 괴롭히고 서럽게 했던 애들도 찾아오고, 내 돌멩이에 맞아 박이 깨진 요놈도 찾아와서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테니 마음을 풀자고 용서를 빈다. 이 친구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차우첸미(朝鮮米)는 한 알이 오리 알만 하고 맛도 좋으면서 부럽단다. 1945년 11월 초, 임정 요인은 조국을 향해 떠났다.

일행이 떠나기에 앞서 중국의 장개석 총통과 영부인 송미령 여사는 국민당 중앙당부 예당 홀에서 성대한 환송연을 열고 각 혁명영수(革命領袖)들과 늦도록 우의를 다졌다. 이는 당시 중국 중앙사보가 보도한 내용으로서 초청인사를 보면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국무위원 이시영, 외교부장 조소앙, 재무부장 조완구, 군정부장 김약산, 내무부장 신익희, 문화부장 김상덕, 선전부장 엄항섭, 법무부장 최동오, 참모총장 유동열, 이청천 장군, 생활위원장 윤기섭, 회계감사원장 이상민, 서무국장 임차봉, 의정원 의장 홍진 등 30여명이 초청되었다고 보도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중경 기록에도 그렇게 쓰여 있다.

벽찬 감격으로 떠난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해에 서럽게 도착했다. 미군정의 석연찮은 푸대접이 시작되었고, 미적거리느 군 당국은 11월 23일에 이르러서야 항공편을 보내 분산 귀국 길을 열어준 것이다. 선발 1진에 탑승한 김구 주석, 김규식 부주석, 이시영 국무위원, 김상덕 문화부장, 엄항섭 선전 부장, 유동열 참모총장과 수행원들은 구름사이로 조국 산하가 들어나자 모두 절로 한 덩어리가 되어 애국가를 목청껏 지르면서 오열했다. 모질게도 서러웠던 망명 타향살이 27년, 비행기에서 내린老혁명가들은 땅에 엎드려 조국의 흠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감격의 순간도 잠시, 내 조국에 돌아온 노정객들에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겪은 설움보다 더한 싸늘한 영접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임시정부의 귀환이 세상에 알려지자 온 국민은 열광하였으며 전국 방방곡곡은 환영일색으로 이 우국충정의老혁명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는 이 엄청난 민심의 파동이 군정 수행에 영향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느라 속좁은 짓을 하고 만 것이다.

임정요인은 밀폐된 장갑차에 실려 국민과 차단된 귀환으로 냉대 받으며 조국에 돌아왔다.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누구인가.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는 미 육군 사병출신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세아 작전 지역에서 맥아더 원수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스틸웰 대장 휘하에 있었으며 타고난 싸움닭 기질로 인도, 버마 등을 작전

권 안에 두고 있는 스틸웰 사령부 예하에서 전차부대를 이끌고 일본의 기갑부대를 격파하며 승승장구, 삼성장군에 오른 전설적인 사병출신 장군이었다.

유럽전선에서 사막의 여우라 일컫는 독일의 명장 롬멜 원수의 전차부대를 격파하고 용맹을 떨친 패전 대장에 견줄 만큼 싸움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으나 인품에는 문제가 많은 장수였다. 그는 미군장교의 엘리트코스인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고위 장군이 갖추어야 할 품격도, 지장(知將)과 덕장(德將)의 소양도 부족해서 한 나라를 운영할 철학이 모자라 격조 낮은 군정을 하고 만 것이다.

하지 중장이 주한 미 사령관으로 명받은 것은 오키나와 주둔지에서였다. 아세아의 정서를 이해하는 스틸웰 장군의 휘하 지휘관인 그는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동경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에 편향적인 맥아더사령부로부터 명받은 것이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막중한 임무라면 주둔국에 직접 가서 전반적인 구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나 전후수습사정으로 여의치 못하면 유능한 보좌진을 보내 그 나라의 지도층과 협의해서 정서에 맞는 설계를 짜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정치문외한 싸움꾼 하지는 우리를 침탈한 총 본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과 인수인계 작업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며 통신으로 인수 작업을 끝내고 만 것이다. 정무총감이란 자는 통화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무지몽매한 국민으로 폄하하면서 은연 중 침략 행위를 정당화 하려 했고, 통역 높은 한술 더 떠 아예 미개인들이라고 통역을 해대니 꼭 막힌 하지는 이 농간에 놀아나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진주해온 것이다.

하지가 진주군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하던 날, 이런 고약한 내막이 있었는지를 알 턱이 없는 우리 어진 백성들은 해방의 은인이 온다고 연안부두로 환영인파가 몰려갔는데 하지는 지레짐작으로 진주군에 대항하는 시위 군중으로 오판해서 자칫 큰 불상사가 날 뻔 했다.

1946년 정초 손가화원 민혁명 가족들은 새벽부터 식사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당시 중국도 설 음식으로 가래떡을 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가래떡이 우리는 둥근 원형인데 비해 중국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 가래떡은 년까우(年鰲)라고 했다. 이 년까우를 썰어서 프라이팬에 볶아 먹은 것이 손가화원의 마지막 음식이었다.

임시정부 청사에는 장개석 정부에서 제공해 준 버스 10대가 대기하고 있어서 시간에 맞추느라 서둘렀다. 해를 넘겨서 떠나는 임정 가족은 조금했다. 귀국 일정을 매우 타이트하게 짰고, 일행의 버스 행렬은 새벽에 떠나 밤중에 머무는 강행군 일주일만에 버스의 종착지 창터에 도착했다. 여기서 버스는 보내고 배편으로 바뀌 동정호 물결을 가르며 앞으로 나갔다. 대륙 최대의 호수 동정호는 호수 같지가 않았다. 끝이 보이지 않아 망망대해처럼 보였고, 소형

기선이 끌고 가는 바지선은 느릿느릿 세월을 낚으며 나가니 일행은 답답해서 죽을 맛이다. 여러 날 만에 제2기착지 한구에 내렸다. 8년 전 병력을 초보해서 의용대를 창설했던 민혁명과는 인연이 깊은 독립운동 피난지였다. 임정가족은 교민 집으로 흩어져서 다음 배편을 기다리게 됐는데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 않는 교포들이 임정가족을 맡겼다며 서로 다투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머문 교포는 삼륜차를 끌고 빠듯하게 생업을 하는 집 같았으나 끼니마다 성찬을 차려서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교포 집에서 처음 저녁을 먹던 날, 상에 가득한 고기반찬, 생선 반찬은 놔두고 어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시뻘건 배추를 집어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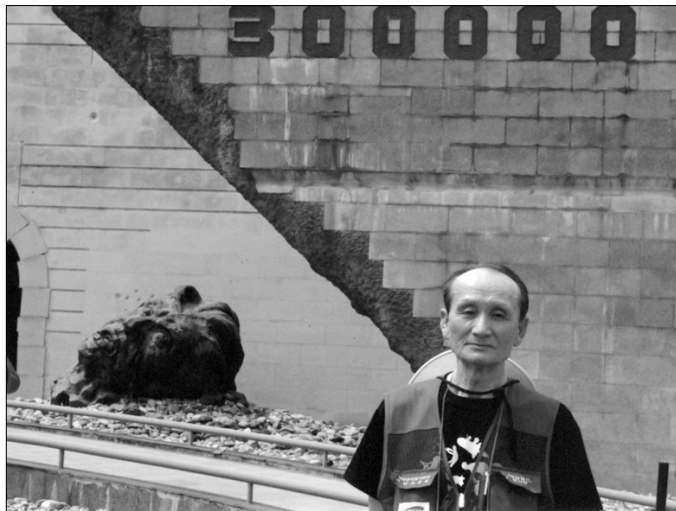
도대체 고기보다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저것이 뭔가 하고 집어 먹다가 헛바닥이 얼얼해가지고 까무러칠 뻔했다. 뭐 이런 걸 눈물까지 흘리면서 먹는지 이해가 안돼 어른들에게 물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대표음식 김치라는 거란다.” 우리의 최고 음식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훗날 음식은 솜씨를 먹는 것이지만 김치는 열을 먹는 우리나라 고유의 혼의 음식이라 깨닫는데 장장 십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한 때 일본이 ‘기무지’라 이름을 붙여 다케시마 우기듯이 저네들 음식이라 우겼으나, 유네스코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어 국제 망신을 당한 것도 이 안에 우리만의 혼의 맛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가짜가 들통 난 것이 그들의 패인이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 기무지는 바보다.

한구에 일주일 머물다가 배편이 생겨 구강을 거쳐 남경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고고성을 지르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내 태생지다. 세 살 때 아장 걸음으로 떠나 초교 5학년으로 자라서 돌아온 내 마음의 고향이다. 생가인 호가화원에 가보고 싶었으나 일행의 여정에 남경은 잠시 머무는 경유지였고, 여기서 상해까지 기차 여행이 잡혀 있었다. 인솔자는 기차가 곧



▲ 남경 호가화원 옛 터
필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 곳이다.



▲ 2009년 7월 11일 남경 대학살박물관 앞에서, 피해자 300,000 숫자가 박물관 곳곳에 새겨져있다.

올 것이니 흠을 이탈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역무원이 곧 온다고 하는 기차는 만나절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다.

중국의 만만디 문화를 참고 기다리면서 현지인들에게 상해가 어디쯤 있느냐 물으니 이웃집 나들이 정도로 코앞이란다. 만나절이 훨씬 지나서 기다리던 기차가 오기는 했다. 느릿느릿 달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고 스치는 풍

경에 무심코 눈길을 보내며 지나가는데 완전 군장을 한 일본군이 포구로 행군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눈에 띈다.

‘바로 이들이 아세아를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이 자랑하는 관동군이구나!’

그러나 지금 창밖의 대열은 전의도 없고, 터덜터덜 군기가 다 빠진 패잔병 행렬에 불과했다. 남경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남경 시민 한 사람이 일본 패잔병 하나를 붙잡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공안 경찰이 오히려 자국민의 팔을 비틀고 포박하는 장면을 보았다. 남경은 중국의 수도였다.

1937년 12월 13일 일제 침략군이 남경을 공략할 때 장개석의 국민군이 수도 사수를 위해 항전했다고 해서 패섬죄를 물어 남경에 쇄도해 들어온 제국군대는 남경시민을 무차별 도륙해 남경 시민의 절반이 사라졌었다. 일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뻔뻔함의 극치이다. 남경 학살의 현장에 가보라. 거기에는 참혹했던 일제의 잔혹사가 고스란히 발굴되어 전시하고 있다.

장개석 총통은 남경의 분노를 알기에 일제의 보복행위를 못하게 특명을 하달했던 것이다. 지금 행군하고 있는 이 포로들은 당시 학살의 주역이었다. 남경을 도륙한 침략군이 엄격한 보호 아래 평화로운 철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상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안일하게 저들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일본은 어떠한가.

일제 강점기 관동 대지진때 화재가 일어나자 ‘조선징(朝鮮人)’이 저지른 짓이라고 유언비

어를 퍼뜨려 우리 교포 수 천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 놓고 지금 그들 교과서에 한국인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거짓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위안부도 없고, 아세아 전반에 걸쳐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는 모르쇠로 잡아떼고 있다. 일본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세계를 향해 연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 일련의 각본은 국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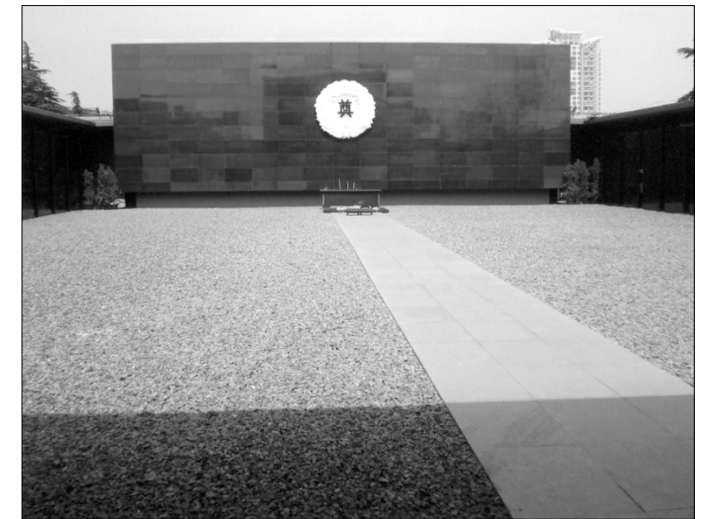
아니라 지도자들의 비뚤어진 연출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웃집 나들이라던 상해는 밤중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남경에서 상해까지는 우리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되는 거리다. 이 정도면 우리의 거리 개념으로 치면 긴 여행이라 할 만한데 중국의 지도를 펴 보면 코앞에 있는 것이 맞다.

위낙에 넓은 땅 덩어리에서 생긴 착시현상이니 중국 여행할 때에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상해에서의 귀국길은 바닷길이라 대형 선박이어야 했다. 임정에서 미군정에 지원 요청한 배가 늦어져 한 달을 기다렸다. 하루하루가 지루한 나는 바깥을 돌아다니며 소일했다. 중경에서 미아가 될 뻔 했던 나는 이번에는 큰 건물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노점상에서 왕징웨이 지폐로 뭇 사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왕징웨이(汪精衛)는 일제가 만주에 세운 괴뢰정권으로 중국에서는 매국노로 지탄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미 폐기처분되어 쓰레기통에 넣어있는 이 지폐가 좌판에서 통하고 있었다. 눈이 번쩍 뜬 나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돌아다니며 한 다발을 줍고 좌판 할머니에게 가니 참쌀 주먹밥 하나를 주면서 더 갖고 오란다. 이 주먹밥은 간식으로 즐겨먹는 여우타우(油條)라는 파배기를 속심으로 넣은 것이라 겉보기 보다는 맛이 좋았다. 뜻밖의 횡재를 한 나는 다음 날부터 왕징웨이 지폐를 줍느라 날 가는 줄 모르고 사업이 바쁘게 돌아갔다.

1946년 3월 3일, 대망의 귀국선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원래 우리가 탄 LST 군용 수송선은 인천이 목적지였으나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항해에 장애가 생겨 예정보다 늦은 3월 8일



▲ 남경대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 제전

부산으로 입항했다. 상하(常夏)의 도시 중경에 살다가 부산에 내린 첫 인상은 뻘 속을 후비는 추위였다. 배에서 내리는 일행에게 몸속에 DDT를 뿌리더니 추위에 온 몸이 오그라든 임정 가족에게 따뜻한 오징어 국 한 국자씩 배식해 준 기억이 난다. 일행은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밤 기차로 떠나 2박 3일 만에 3월 10일 새벽 서울역에 도착했다. 서울의 여명은 몸서리가 치졌다. 부산의 추위는 추위도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급히 여관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 도착을 알리고 기다리는 동안 깔아 놓은 이불 속으로 언 몸을 밀어 넣어 보니 천국이 따로 없다.

생전 처음 본 온돌방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도 충분한 문명의 걸작 같았다.

스르르 녹아내리는 잠결 속에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보니 아침상이 차려져 있다.

내 나라 밥상과의 첫 상견례 자리다. 중국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호기심 반, 기대 반 차려진 식단을 두루 훑어보니 전부가 낯설고 한구에서 식집을 했던 김치라는 것도 가운데 떡 하나 버티고 있었다. 오리 알만하다는 밥을 시식해볼까 하고 뚜껑을 열어 보니 밥알이 똑같다. 내심 크게 실망하고 한 숟가락 입에 넣어보니 맛 하나만은 기가 막혔다. 손가화원에서 먹은 바람에 폴폴 날리는 밥과는 비교도 안됐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오리 알만하다는 말만 빼면 다 맞는 말이었다. 처음 먹어보는 생선전도 좋고, 잡채, 불고기 다 맛이 좋았으나 가장 강렬한 첫 인상을 준 것은 김이었다. 어른들이 밥숟가락에 콧 찍어서 붙어오는 녹색 종이를 먹기에 따라 해 보니 입 안에 가득 향이 퍼지는 것이 최고로 곱힐 만 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여관은 숙식 제공이었다. 여관마다 정성스레 손맛을 뽐냈고, 단골손님은 입맛 따라 여관을 찾아갔다. 너무도 정겨웠던 그 때의 풍경이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숙소로 옮겼는데 지금의 국가 사적 465호 경교장이었다. 김구 주석이 계시고, 임시정부 청사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경교장 전면에서 보면 2층 맨 왼쪽 방에 주석이 계셨고 바로 옆방이 우리 집, 그 다음이 엄항섭 선생 덕이었다. 끝에는 주석의 큰 며느리 안미생의 방이 있었다.

경교장은 일제 시 금광 사업에 성공한 최창학의 저택이었으나 미군정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의지할 처지가 막연하여 사정이 딱하게 된 주석과 두 분 국무위원을 위해 주선에 나선 국내단체들이 최창학으로부터 기증 받은 건물이다. 임시정부 측은 처음에는 최창학의 친일행적이 문제가 되어 망설였으나 임시정부 기능을 이어갈 청사가 시급했고, 주석과 두 분 각료의 거처도 고려해서 애국단체의 설득과 조건 없는 기증을 받아들여 입주하게 된 것이다. 임정은 왜색 느낌의 축첩정을 경교장으로 바꾸고 당시로는 저택 공간이 넓은 이곳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정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경교장은 환경이 쾌적했다. 건물이 깨끗하고 정문 앞에는 드넓은 터에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려 있어서 조망이 시원했다. 일상생활은 공청(公廳)답게 매우 규칙적으로 운영되어 식사 시간이 정확했으며, 끼니마다 흰 가운에 흰 모자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요리사가 방문을 노크해서 알려 주었다. 지금 복원된 경교장의 식당은 1층에 있으나 당시에는 지하층에 있었고, 주방과 마주 보는 앞 쪽에 식탁이 놓여 있었다.

식단은 1식 3찬 정도로 소박한 편이었으나, 독립운동 타국살이 시절 위낙에 투박한 밥상이 버릇이 되어서인지 성찬 느낌이었다. 고약한 냄새를 내는 어리굴젓만 빼면 다 좋았고, 특히 카레라이스가 입에 맞아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난다.

굶주림의 세월을 보낸 내게는 경교장의 일상이 편안한 것은 분명하나 따분했다. 우리말이 서투르니 마음 놓고 나다닐 수도 없고, 경교장 안에는 또래 친구도 보이지 않아 한참 나부대는 나이에 주변이 너무 답답했다. 경교장은 독립운동 연장선상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격이기도 하니 오는 손님은 하나 같이 엄격했고, 그 악랄한 일제도 꺾지 못한 드높은 기상은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 슬슬 피해 다녀야 했으니 재미가 있을 리 없다. 가까운 거리로 나가 구경해봐야 어찌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다닐 뿐, 도심에는 말뚝을 흘리며 달리는 마차가 지금의 교통수단이라 볼썽사납고, 전차도 드문드문 땡땡거리며 지나가는 한가한 모습이 당시의 풍경인지라 한 시간만 보면 심심해지는 것이 서울의 구경거리였다.

한글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느는 맛이 있는데, 혼자서 공부하자니 금방 졸음이 오고 싫증이 났다.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 궁리를 해도 상대가 있어야 수가 나는 것이지 아무도 없으니 방법이 없다. 경교장은 당시 서울에서 꽤 알려진 동양극장(지금의 문화일보 자리)길 건너 오르막이 통로였고, 중간 지점에 담을 쌓아 외부와 경계선을 이었다. 오르막 중간에 묵직한 나무대문이 출입구이고, 대문 바로 안쪽에 경비실이 있어서 경찰 경호팀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와는 나이 차가 많아 아저씨뻘이었지만 어울리는 근사치로는 경찰 아저씨가 제일 가까우니 궁여지책으로 경비실 쪽으로 슬슬 접근해 봤다. 경찰 아저씨들도 좁은 공간 안에서 종일 보내는 것이 지루했던지 앞에서 알짱거리는 꼬마가 싫지만은 않은 것 같은 눈치였다. 일이 잘만 하면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든 나는 집에 있는 아버지 술안주 마른 오징어 몇 마리를 몰래 빼내어 경비실에 뇌물을 한 번 찔러 봤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빨라 경찰 아저씨들이 좋아 죽는다.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때부터 경비실을 들락거리면서 어울리니 자연스레 말도 일취월장이다. 말 배울 때 흔히 있는 실수답이지만 경찰 아저씨가 가르친 대로 교대 근무하러 출근하는 다른 경찰에게 “아

저씨, 밥 처먹고 왔어?” 했다가 꿀밤도 맞아봤고,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실언은 말이 서툴러서 나오는 것이라 무미건조한 경비실에 이것이 오히려 깨소금 맛을 내니 경비실 마스크가 되어 내가 짝이란다.

아무나 잘 따르는 나는 그 사이 주석 어른 운전기사 아저씨와도 친해져서 가끔 어른의 일정이 빌 때에는 차에 태워 서대문 로터리를 돌아 세종로까지 한 바퀴 드라이브도 해주고는 했다. 경교장 들어가는 큰길가 왼쪽 편에는 국화빵 가게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자전거 점포가 있었다. 이 점포가 귀국하기 직전에 화재를 만나 자전거를 몽땅 태워 잔해가 나뒹굴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잘 따르는 경찰아저씨가 가게 주인에게 사정하더니 불에 탄 자전거 바퀴 하나를 얻어 망치로 흰 부분을 두들겨 잡아 근사한 굴렁쇠를 만들어서 선물로 준다. 경교장 드넓은 그린필드는 굴렁쇠 놀이공간이 되어 갇힌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경교장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꼭 쓰고 싶은 두 가지가 있다. 임시정부 1진이 귀국한 1945년 11월 23일, 미군정 사령관 하지에게는 매물찬 냉대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형극의 길을 헤치고 조국에 돌아온老혁명가들을 열화와 같이 환영했다. 이것을 마땅찮게 본 권탐 세력들은 시기하느라 임시정부를 왜곡 폄훼하는 속 좁은 짓을 퍼뜨리고 있었다. 점잖은 임시정부는 참고 무대응했으나 갈수록 양양하는 이들의 못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 중에는 친일 매국 분자도 같이 어울려 장단을 맞추고 있어서 국무회의는 격양된 분위기였으나 서로 자제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여럿이 중구난방으로 세간을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조소앙 일인창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게 했다.

음해세력의 행태는 결의문을 보면 알겠기에 옮겨본다.

〈결의문〉

1. 한민족의 주권은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악랄한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공구(工具)로서 국내외의 인민이 합작하여 수립한 것이 임시정부이며,
2. 구성 인물이 노령 인물인데 부적(不適) 운운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나, 이는 인식의 착오로 안다. 무릇 정부는 개인 신경이 아니고 집체적 신경인 정치기관으로서 활동한 것이요, 구성 인물의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운동 노정객을 쓸모없는 노인으로 욕보이려는 불온세력에게 던진 경고이며, 때는 1945년 12월 6일 오후 2시, 경교장 임시정부 국무회의 자리에서였다.

백범주석은 많은 휘호를 남겼는데, 거실 앞은뱅이책상 위에는 문방사우, 지, 필, 묵, 연이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 있었다. 주석의 필체는 극히 보기 드문 떨림체다. 이는 독



▲ 중국 장사시 남목청 이곳 2층에서 흥한 이운환이 백범 김구선생을 향해 기습총격을 가했다.

립운동 시절 중국의 장사시 남목청 2층에서 타 세력과 당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던 중 기습총격을 가한 흥한 이운환이 쏜 탄환이 몸에 박혀 당시의 의술로는 빼내지 못한 데서 온 후유현상이며 주석께서 마디마디 고통이 베인 떨림체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겨레의 스승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멈추지 못한 것이라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붓을 잡을 때 주석의 모습은 단정하고 결연했으며 어린 내가 지근거리에서 수도 없이 와 닿은 겨레의 우상으로 느꼈었다.

그러므로 어른의 유작은 거의 모두 혼도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나라를 걱정하는 내면이 절절히 배어있으며, 그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대표작을 골라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踏雪野中去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
不須胡亂行 마땅히 되는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은
遂作後人程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지은이는 다르나 백범 주석이 널리 혼도한 구절이다.

경교장 생활 반 년 만에 집이 마련되어 떠났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죽첩정주택이다. 훗날,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씨가 살던 세칭 서대문 경무대로 알려진 그 집이다.



▲ 삼청초등학교 재학시절, 키 큰 담임선생님과 학우들과 함께 찍었다.
(동그라미 표시가 된 아이가 필자다)

4.19의거 때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려 일가는 몰락하였으며, 지금은 4.19 혁명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그 자리다.

자식을 늦게 얻은 아버지는 조금했던지 우리말이 서툰 남매를 여름 끝자락 무렵에 초등학교 5학년에 복교시켰는데, 삼청동에 있는 삼청국민학교다. 공교롭게 복학 첫날이 2학기 시험 날이었

고, 그것도 하필 국어 작문시험이었다. 이제 겨우 걸음마하는 아이에게 뽕박질 시험을 하라는 격이라 시험지를 책상 앞에 놓고 막막하고 기가 막혔다. 둘러보니 다들 열심히 잘도 쓰고 있는데 끈이 짧은 나는 쓰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커닝하다 잡히면 매질을 하려고 그러는지 작대기 하나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시험관 선생님은 글자 한자 쓰지 못하고 빈 시험지를 앞에 놓고 있는 나를 보더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닥달을 하신다. 모르는 글을 어떻게 쓰나. 백지 시험으로 끝낼까도 생각해봤으나 담임선생님이 가만 놔둘 리도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성적에 관계되는 시험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시간은 이미 반이나 지나 속이 탄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 쪽으로 배짱으로 굳히고 순 중국 글짓기로 갈겨 버리고 나왔다. 시험을 치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해 보여 담임선생님 눈치만 보고 조마조마하게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도록 키가 큰 우리 담임선생님에게서 반응이 없다.

당시 학교에서는 빵이 하나씩 배급되었는데 점심시간에 빵을 먹고 있으려니깐 교무실에서 호출이 왔다. 걸려도 크게 걸렸구나 하고 기가 팍 죽어 사환을 따라 교무실에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전교 선생님들이 빙 둘러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문앞에서 있는 내게 뜻밖에도 교장선생님이 옆에 놓인 빈 자리에 어서 앉으라며 겁먹고 서 있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마음을 풀어준다.

교장선생님은 묻는다. 중국 어디에 있었느냐. 얼마나 있었고, 언제 들어왔느냐. 궁금한 것을 다 캐묻고 나더니 문제의 시험지를 펴 놓고 한 구절 가리키면서 해석해 보란다. ‘我們大

家’ 부분이다. 앞서 교무실에서는 이 희한한 시험지를 놓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해 봤으나 선생님들이 다 덤벼도 뜻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서 나를 찾은 것이다. 이 부분을 한문 식으로 풀면 억지추향으로 내 문 앞에 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 말이 연결되지 않더라. ‘우리 모두’ 라는 뜻이라고 하니 머리를 싸맸던 선생님들이 어이가 없단다. 하면, 억지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이것은 또 뭐냐고 묻는데 손가락이 짙은 곳을 보니 ‘這個東西’ 라는 대목이다. 간단했다. ‘이 물건’ 이라고 하니 교무실 안에는 어이없는 웃음이 낭자하게 퍼진다. 이런저런 궁금증을 다 푼 교장선생님은 인사하고 나오는 내 어깨를 만지면서 잘했단다. 당시 선생님들은 한문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 작문을 풀지 못한 것은 한문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뜻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기가 팍 죽어 끌려갔던 나는 선생님들의 흥건한 웃음을 뒤로 한 채 보무당당하게 교무실을 나왔다. 잘했다는 교장선생님 칭찬을 담임선생님도 옆에서 듣고 했으니 고 득점을 기대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학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좀 되면 가방을 챙기면서 떠드는 소리가 난잡하고 어수선하기 마련인데, 오늘 담임선생님은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활짝 핀 얼굴로 교실에 들어왔다. 평소 같으면 “이놈들 조용히 못해!”하고 엄포 한 방을 날려봄직한데 카리스마 넘치는 키가 큰 선생님이 오늘은 아주 판 판이다. 주목하는 아이들을 휘~ 한 바퀴 둘러 본 선생님은 조금 전 교무실에서 생긴 이야기를 꺼내신다. 선생님은 교장과 전교 선생님들이 다 모인 교무실을 들었다 났다 들쭈시고 나온 것이 자기 반 아이라는데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던지 없는 살까지 발라가면서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것이 입방아를 거쳐 한 입 건너 퍼지더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짱골라’라는 별명이 내게 붙었다.

좋다! 중국에서는 폐부를 찌르는 지독한 욕도 먹고 살았는데 이쯤이야 애들 장난 정도로 쳐 버리자. 나는 스스로없이 아이들과 어울려갔다.

시험도 끝난 늦여름 날, 전교생이 같이 가는 소풍날이 왔다. 행선지는 마포 강가였다. 그때는 꽤 넓은 모래사장이 강가에 펼쳐 있었던 때다. 장마가 막 지나간 뒤라 아직도 황토물이 흐르고 강폭이 넓고 유속도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넘실거리는 물결에 겁먹고 있는 애들이 웃긴 나는 거침없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 폼 한번 제대로 보여줬다. 내가 누구인가. 세계 4대 강에서 잔뼈가 굵은 양자강의 사나이가 아니던가.

애들이 오늘 짱골라에게 보기 좋게 걸려든 하루였다.

소풍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를 찾느라 난리가 났다. 여학생들이 배구 놀이를 하다가 스파이크를 잘못 치른 바람에 공이 물속에 들어가 급류를 타고 떠내려가는 중이었다. 물속에서

종일 노느라 힘이 빠진 나는 속도가 나지 않아 거의 강 중심쯤에서 가까스로 공을 잡았는데 급류에 밀려 까마득한 하류 지점이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초짜들은 엄청난 거리를 헤엄 쳐 간 실력으로 알고 다들 존경해 마지 않는 눈치다. 당시에 배구공이라면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다. 여학생이 저지른 일을 해결한 나는 졸지에 흑기사로 수직 상승했다.

삼청국민학교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숲이 울창한 삼청공원을 뒤로 하고 있어서 운치를 살리느라 계곡물을 둑으로 가두어 호수처럼 되어 있었다. 수위도 적당하고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수영장이어서 헤엄칠 줄 아는 아이들의 물 놀이터였다.

소풍 사건 이후, 수영장 가는 길은 일약 수영 스타가 된 내 뒤로 초짜들이 줄줄이 따라붙어 내 신분은 짱 골라 시대의 내가 아니었다.

당시 우리 반은 쉬는 시간에 말 꽤나 하는 애들이 교단에 올라 웃기는 소리로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 서툰 것만 빼면 이야깃거리는 내가 월등해서 애들 콧대를 쉽게 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위상이 달라진 나는 큰 맘 먹고 교단에 오르기 시작했다. 말이 서툴러도 단상에 오르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짱골라라는 별명은 은연 중 촌놈이라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사람을 은근히 찻찻하게 하는 구석이 있다. 일단 내 이야깃거리는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니 통부터 커서 초장에 기를 죽여 놓고 시작했다.

아이들이 뭘 알겠는가. 동정호는 바다요, 양자강 파도는 집채만 해서 파도를 타면 산에 올랐다 내려오는 기분이라 하니 와! 와! 하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탄성이 완전히 촌놈이 바뀌는 모양새다.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다. 중원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이 머나먼 만리장성을 보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으로 알고 동경했었다. 학교에서는 이런 아동심리를 알기에 만리장성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만리장성 노래를 가르쳐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였다.

“완리창청완리창, 창청와이맨스구양(萬里長城萬里長, 長城外面是故鄉)”

음조가 구성지고 향수를 유발하는 것이라 중국 사람들에게는 자극을 주어 꼭 가보고 싶은 그림의 떡 같은 곳이다. 만리장성은 북경 북쪽 산해관(山海關)에서 시작해서 서쪽 감숙성의 자취관(嘉峪關)까지 뻗은 만 리에 가까운 대역사였다.

지금 교단에 서서 여기를 걸어서 다 본 것처럼 허풍을 치니 애들 모두가 기가 팍 죽어 있다. 그렇잖아도 중국식 말이 웃기는 판에 말로만 들었지 감히 꿈도 못 꿀 대형그림을 세치

쪼동이로 나불나불 펴보이니 애들이 다 깜박 넘어간다. 다음부터는 잔챙이 같은 소리는 시시해서 들으려 하지 않아 왕년에 말 꽤나 했던 애들이 줄줄이 교단에 가기도 전에 쫓겨 들어와 싫어도 교단을 내 차지가 되고 있었다.

짱골라 티를 벗고 싶어서 시작한 허풍이 먹혀들고 이왕 시작한 김에 재미있게 한다는 것이 교단에 떠밀려 올라가니 우리말이 급속히 늘어갔다. 이때의 소학교는 글씨 숙제를 자주 냈고, 우수작을 뽑아 교실 게시판에 붙여 놓았었다.

학교에 복학한 지 두 달 만에 내 글씨가 게시판에 붙기 시작했다. 한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싸맨 효과다. 1948년 3월 졸업식 날, 반대표로 졸업식 무대에 오른 나는 봄을 예찬하는 중국 노래 한 곡조를 뽑는 것을 끝으로 소학교를 떠나 경신중학교에 입학했다. 이때의 중학교 학제는 중학 6년제였고, 아버지가 교장으로 계셨다.

강직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치부(治富)할 줄 모르고, 청빈생활을 했었다. 아버지 덕에 학비가 면제된 것도 집에서 거리가 먼 경신중학을 선택한 이유였다. 중학교 생활은 아버지에게 누를 끼칠까봐 늘 조심하고 조용했다. 아버지가 경신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것은 재단 이사장인 김규식 박사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는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경신중학교는 황해도 호농(豪農)김홍량, 원량 형제의 재정치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였다. 일제의 오랜 침탈로 나라경제가 파탄한 해방정국 때에 경제적 토대는 거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시대였고, 농사 쪽에 부자가 많고 큰 농사를 만석꾼이라 했다. 두 분 형제는 그냥 만석꾼이 아니라 한 해에 부자 한 사람을 만들 만큼 규모가 커서 경신학교로서는 재정 지원이 탄탄했었다. 이 재정 지원 루트를 38도선이 끊어버려 경신중학은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경신중학은 배제중학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력(校歷)이 긴 전통 있는 학교였다. 경신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동문들이 발 벗고 나섰다. 백척간두에 놓인 학교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를 조직했고, 김규식, 김상덕, 신동기를 추진위원으로



▲ 1947년 11월 30일, 경신중학교 축구부 우승 기념 촬영. 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경신중학교 교장 재직시절의 아버지 김상덕 선생.

모서서 학교의 운영을 맡기고 설립자로 추대했다.

경제가 황폐했던 해방 정국이라 구교의 길은 험난했으나, 3인 설립자는 역할분담을 하고 각자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천신만고 끝에 차츰 숨통을 트면서 학교는 서서히 안정되어 갔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당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계에 원만한 관계가 필요했는데, 당대 고위층과는 돈독한 연분이 있는 김규식 박사와 아버지였는지라 아버지를 제격으로 본 김규식 박사가 경신학교 교장을 강력히 원하고 추천했던 것이다. 30년 전 시골 빈농 집안의 고학생을 목공부에 받아들여 향학의 꿈을 키워 준 경신학교다. 기독교에 추천해서 동경 유학을 가게 한 모교다. 아버지는 보은하는 심정으로 구교에 발 벗고 나섰고, 교장직을 수락했다.

경영난으로 힘든 학교는 설상가상 좌익계열의 학생들이 벌인 책동으로 혼란마저 겪고 있을 때였다. 일부 교직원이 배후를 조장하고 있어서 태업, 휴학을 부추기는 심각한 사태에서 역대 교장이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였다.

아버지는 취임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미온책으로는 학교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과감한 용단을 내려 주동 선생과 극열 분자 50여 명을 가려내어 퇴출의 극약처방으로 밀어붙여 난국을 진정시켜 나갔다.

경신 중·고의 역사를 기록한 ‘경신사’에 보면 아버지가 1948년까지 교장직에 계셨다고 쓰여 있으나 착오인 듯하다. 경신학교는 아직도 암암리에 준동하는 좌익계 학생과 재정문제로 불안했고, 국회의정활동과 반민특위의 바쁜 일정으로 상시출근은 어려웠으나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 나갔고, 나는 아버지의 출근 차에 같이 타고 등교했었다. 당시 전국의 중학교(당시 6년제)는 학도호국대로 편성되어 배속장교가 군사 훈련을 맡았고, 군부의 주기적인 검열을 받고 있었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등은 학생 간부 중에서 차출되었으며, 아버지가 교단에 오르면 연대장이 “차렷! 교장선생님께 경례!” 구령을 외쳐서 학생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교장훈화가 있는 것이 전국적인 격식이었다. 이 의식은 6.25 사변 때까지 이어진 기억이 생생하다.

축구 명문인 경신중학은 승운이 없어 우승 일보전에 고배를 마시는 때가 많다가 1949년 6월 10일 전조선중등학교축구대회에서 숙원을 풀고 우승을 하였다. 우승 기념사진에 보면 우승 날짜가 적혀 있고, 아버지는 교장석에 앉고 진석오 교감은 교감석에 앉아 있으며, 경신학교 역사관에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진석오 교감은 아버지와 경신학교 동문으로 4년 선배다. 교장직에서 물러난 후배에게 교장 자리를 비켜준다는 얘기가 되니 이치에 맞지 않고 경우에도 맞지가 않다.

우승 축하연을 교장인 우리 집에서 열어 선수와 학생 간부가 우리 집으로 모여 떡 파티를 열었는데 떡은 태능 부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학생회장 엄은석이 짚어지고 왔다. 집에 온 선수 면면을 보면 주장 안경철, 황세규, 조선일보회장이었던 방우영, 마세호, 이병문, 이학표, 박경호 등 낯익은 선배들이다.

경신사는 전란 후, 피난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귀환해서 훨씬 지난 뒤에 쓰느라 생긴 착오가 아닌가 짐작된다.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총선이 실시되었다.

고향 경북 고령에서 출마한 아버지는 무난히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단절됐던 국사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 초대 국회는 분주했다. 우선 의장단을 뽑아 의회를 진행해야 했으며, 대통령을 선출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이 시급했고,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 제정이 화급한 책무였다.

의회는 먼저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이어서 헌법기초위원회와 전문위원이 선정되어 헌법기초작업에 들어갔다. 헌법기초위원회에 선임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전에 없이 고뇌에 찬 모습이었어서 집안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식구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큰 방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되찾은 우리나라인가. 가족들은 독립운동 현장에 있었기에 나라의 초석을 세우는 작업에 모두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아버지의 구상을 도왔다.

1948년 7월 17일, 드디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의장 이승만이 만방에 선포한 헌법이다.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의원은 공을 기려 무궁화 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오직 초대 국회에만 제헌국회라는 명예가 주어졌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보면 전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유진오 박사가 독자적으로 초안한 법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 면이 있고, 또 제정 과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여 왜곡 과장된 기록이 곳곳에 보인다. 이점 짚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진오 박사가 주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정에 초빙된 전문위원 모두가 당대의 석학이자 각 분야의 최정상급 법률가들이었다.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이 용납될 수 없는 고고한 인격체들이었다.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된 기초위원 또한 법률에 일가견이 있는 면면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은 오로지 법률로만 획을 그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나라 경영의 철학적 골격과 추구하는 이상, 미래지향적 국가관만이 필수소재이므로 어느 특정인의 법률적 견해

로 제정되는 성질의 법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두고 보더라도 임시정부 시절, 약헌수개위원으로 선정될 때 아버지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보편적 평등권을 누리는 세상이 기본이었다. 이상과 가치관이 다른 수개위원 9명이 장장 1년 5개월 25일에 걸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며 도출해낸 것이 저 유명한 전문을 포함한 7장 62개조로 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각각의 소신이 충돌하면서 조화를 일궈낸 최선의 법안이었으며, 수개위원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아버지는 10분의 동지들과 2.8독립선언을 주도하던 동경유학시절, 국가의 기초를 보통, 평등, 비밀의 원칙에 두고 있어서 이에 합치하는 바이마르헌법에 심취했었다. 헌법학자 유진오 박사가 지향하는 헌법관 역시 당대 세계적인 모범교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아버지와는 쉽게 동조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당시 국회의 절대 다수가 선택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헌법 기초는 자연스럽게 보통, 평등, 비밀의 원칙에 의한 의원 내각제에 직접 민주를 첨가한 법안으로 초안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압도적인 다수결로 의회에 통과되는 추세였으나 이승만의 완강한 반대로 골격이 전혀 다른 대통령 중심제도 변형되어 버린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부린 생떼, 몽니로 다수가 꺾인 체제가 되어 대한민국정부의 첫 걸음은 불행을 잉태한 채 출발했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만약 다수가 지지하는 원안을, 다수결의 민주원칙을 이박사가 존중했다면 대한민국정부는 의원내각제로 경영하게 되어 독재정권도 없었을 것이며, 초대 대통령이 국민의 봉기로 쫓겨나는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그가 조직한 자유당도 인정하는 양신(兩神)이었다. 외교에는 귀신이요, 내치에는 병신이라는 뜻으로 이는 당시 널리 회자되어 세상이 다 아는 통설이었다.

귀신같은 외교 쪽은 생각 않고, 병신같은 내치 쪽만 집착해서 장기집권에 몰두하느라 38선 대문이 열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내치를 유능한 내각 총리가 맡았다면 국가운영의 최고 책무인 국방에 역점을 두어 국토보위에 만전을 기해 허점이 보이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비행기를 겁내고 북풍 한 설 칼바람을 맞으며 시베리아 철도로 생고생하며 모스크바에 간 김일성이 남침에 쓸 무기를 애걸해도 스탈린은 그에게 무기를 줄 리도 없고, 빈손으로 쫓아 보냈을 것이다.

황폐한 전후경제에 허덕이는 소련형편에 풍족한 물자로 에너지가 넘쳐 나는 미국에 덤비는 바보 같은 짓을 능구렁이 같은 스탈린이 할 리가 만무하니 하는 말이다.

세계 2차 대전 때, 지구에 퍼부은 포탄보다도 더 많은 포화가 쏟아져 우리의 산천 경계가

초토화된 6.25 남침도 없었을 것이며, 수 백 만의 인명피해, 10만 남북 인사와 100만 남북 가족이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참담한 전화도 없었을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두고 가정하는 것이다 보니 부질없는 통한의 세월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아집은 대다수가 꿈꾼 이상향을 일장춘몽으로 갈갈이 찢어냈고, 이승만 우상화 세력이 굳이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온 국민의 추앙을 받으며 오를 수 있는 국부의 자리를 이 박사 스스로 부서버렸으니 험난한 공역을 헤치고 찾은 조국이 초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진 모습은 두고두고 애석할 따름이다.

이승만 정권은 이렇게 우리의 국운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지나갔다.

이러할진대 건국 대통령이라니!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이 되며 나라의 골격과 지표를 제시하고 법통과 이념을 명시한 만법의 제왕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을 리 없고,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법통이 시작되었음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 이 법을 이 박사가 선포했으니 건국 대통령도 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격이며 더욱이 국민에 의해 쫓겨났다면 수치다. 만법의 제왕 헌법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께맏춰 봐도 불일 곳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 끌어 들인 법리인지 모르겠다.

행여 진실을 아는 얼마 남지 않은 세대만 어물쩍 넘기면 다음 세대는 모를 것이니 그때 국부 자리로 정착될 거라 믿었다면 매우 미숙한 판단이다. 내내 잠잠하다가 4.19가 50년 쯤 지나자 슬그머니 이 박사 우상화를 찢러 보는 의도가 그렇게 우려스럽게 한다. 천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완용의 죄상을 알고 사육신의 충절을 다 알고 있다. 이는 군왕도 제어할 수 없는 역사를 기록한 사초의 무서운 힘이다.

이러니 이 박사 추종세력은 국민 봉기로 추락한 이 박사를 잊을 만하면 떠오르게 하는 되지도 않은 건국, 국부론 고집을 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기가 철옹성 같은 제국의 성벽을 뚫으려 덤빈 것은 우리 겨레의 버릇에 맞는 회복 작업이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짓밟힌 삶의 권리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우리만의 나라를 꾸려가는 정서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선열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겪었고, 피를 흘렸다.

그렇게 회복한 이 나라를 이승만 자유당은 어떻게 했는가.

겨레의 소망을 모조리 꺾어 버린 그 시대는 슬픈 역사였다. 

조선인 해외 강제이주의 사력(史歷)



김 삼 웅
前독립기념관장

150개 국가에 800만 교포 산재

한민족은 현재 대한민국 5천만 명, 북한 2천 오백 만 명, 해외 동포 800만 명으로 통칭 8천만 명에 이른다. 인구밀도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많기로는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에 이른다. 숫적으로는 중국에 이어 역시 두 번째이다.

공교롭게도 세계강국으로 꼽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인구 8천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 · 중국 · 소련 · 인도를 제외하더라도,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캐나다 · 스페인 · 일본 등이 이에 속한다. 인구 8천만 명 이상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등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 교포가 많이 나가 있는 것은 그만큼 민족사가 심한 고난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살다가 묻히기를 원한다. 조국강산을 떠나 산 설고 물 설은 이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보여준다.

이민을 떠나게 된 배경은 비극적 사력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민족의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제2차대전 후 이스라엘은 해외 이주자들에 의해 국가가 세워지기도 하고, 중국은 화교들의 성금 · 투자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한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는 150여 국가에 이른다. 800여 만 명이, 많게는 몇 백만에서 적게는 몇 천 명에 이르는 한인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한민족이 중국화교와 더불어 두 번째의 현상이다.

21세기 현대는 ‘뉴 노마드’ 시대다. 신유목민의 시대라는 뜻이다. 정보산업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 · 친지와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영상통화도 이루어진다. 이를 잘 엮으면 국가발전에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 우리 유목민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유목민족 몽골의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한민족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엮어서 전자기기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른바 뉴 노마드의 활동이다.

한민족이 세계 150여 국가에 산재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과 격동, 내우외환, 식민지와 독립운동의 아픈 사력을 보여준다. 나라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남부여 대하고 제발로 떠나거나, 강제로 쫓겨나거나, 국제전쟁 터가 되다보니 혼혈아로 태어나거나, 어린자식을 먹고 입히기가 어려워져 해외에 입양하는 등, 그야말로 민족사의 아픈 역사의 산물이 해외교포의 실상이다. 지금도 세계 1위의 해외입양국이 되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교포(민)들의 호칭에서도 민족사의 아픈 사력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는 조선족, 미국과 유럽의 교포는 코리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고려족, 일본에서는 한국인(민단), 조선인(조총련)으로 불린다. 고려 · 조선 · 한국(코리아)의 국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고토 간도 일제가 청국에 넘겨

고대시대부터 간도와 만주지역은 한민족의 활동영역이었다.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는 10세기초까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일대는 한민족의 활동중심지였다. 발해가 망한 후 고려 예종이 도원수 윤관을 파견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을 정벌하고 조상의 고토를 다시 회복하였다. 윤관은 두만강 이북 70여 리를 개척하고 9성을 쌓았다. 명나라

말기까지 국경문제로 중국과 분쟁하는 일은 없었다. 중국 역시 이 지역을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 것이다.

명나라가 망한 후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면서, 1658년 간도를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선포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의 이주를 엄금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곳을 인삼 채취와 수렵, 벌목의 생활무대로 삼았다.

조선과 청나라는 1885년 양국 대표들이 백두산정계비에 기록한 현재의 북간도 일대가 청국령이 아닌 조선의 영토라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조선정부는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2년 이범윤을 간도사찰사(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지방행정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일본과 청국은 1909년 9월 4일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고토인 간도지역을, 한국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간도 영유권을 청국에 양도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일제가 대륙침략에 필수조건이 되는 민주 철도부설권과 무순·연대 등지의 채탄권 획득의 교환조건으로 청국에 넘긴 것이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36년 간의 만행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구토 간도지역을 중국에 넘긴 것은 두고두고 용납할 수 없는 폭거였다.

또한 박정희가 1965년 한일굴욕회담을 강행하면서 간도영토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매국노적인 행위였다. 당연히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했고, 한·중·일 3국의 정치 현안으로 만들었어야 했던 것이다. 갈수록 강대해가는 중국의 위상으로 보아 간도(동북3성지역)의 영유권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훗날 동북아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록으로라도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령 연해주와 간도에 한인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한말, 일제강점 초기였다. 한말에는 거듭되는 흉년과 탐관오리들의 수탈, 그리고 일제 침략기에는 왜정을 피해서 또는 국권 회복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동포들이 이주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이곳에서 의병, 독립군, 빨치산 투쟁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이주는 어떤 형식이든 자발적이었다. 생계를 위해서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나 만주와 해삼위로 건너간 동포들은 해외에서 국권회복운동의 모태가 되었고, 이를 통해 호칭이야 어땠던 간에 조선인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였다.

하와이 집단이민 7천여 명

미국령 하와이 이민의 역사도 비슷했다. 500년 동안 중화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은 19세기 후반에 서구 여러 나라의 근대문명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근대화된 서구 문물이 알려지고, 열강의 한반도 침탈이 시작되면서 일부 선각자들이 서양을 다녀오거나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되었다.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을 전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는 관·민의 숫자가 늘어났다. 첫 미국 이민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진행된 하와이 집단이민이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하와이에는 ‘꾸리’라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가 46,000여 명에 이르렀다. 중국인 노동자 수가 많아지면서 집단행동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자 미국 정부는 이를 분산시키고자 근면한 한인 노동자의 집단이주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일본인 노동자도 1902년 현재 6만여 명에 이르렀다.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을 주도한 사람은 서울의 미국 공사관 의사(검 선교사) 알렌이었다. 알렌은 한·미수호조약에 따라 고종에게 한인의 하와이 이민을 설득했다. 조정에 수민원(綏民院)이 설립되고 동서개발공사가 설치되어 이민사업을 시작했다. 민영환을 총재로 하여 설치된 수민원에서 내건 ‘이민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1. 하와이 군도는 누구든지 일신이나 혹 권속을 데리고 와서 주접(住接)하고자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편리케 주선함을 공고하노라.
2. 기후는 온화하여 심한 더위가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함.
3. 학교 설립법이 광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는 받지 아니 함.
4. 농부들을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절기든지 직업 얻기가 용이한데,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여일하고 장구한 직업을 얻기가 더욱 무난하고 법률의 제반 보호를 받게 함.
5. 월급은 미국 돈으로 매월 15원(대한제국 돈으로 57원 가량) 씩이요, 일하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동안이요, 일요일에는 휴식함.
6. 농부의 유숙하는 집과 나무와 식수와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주가 지급하고 농부에게는 받지 아니함.
7. 대한제국이 이 고시를 공포하는 권한을 줌.

이같은 공고가 주요 도시에 나붙었으나 응모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해도 외국 상황을 잘 모르던 당시 조선인들이 쉽게 결단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마치 요즘 달나라 이민 공고와 같은 수준의 인식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정부의 주선으로 첫 하와이 이민단 121명이 제물포를 떠난 것은 1902년 12월 22일이다. 미국상선 켈리호를 타고 첫 이민선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은 1903년 1월 13일이었다. 남자 48명, 여자 16명, 어린이 22명이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이민은 1905년 7월까지 총 65척의 선편으로 7,226명이 이민하게 되었다. 남자 6,048명, 여자 63명, 어린이 541명이었다. 하와이 이민 제1세대에 속한다. 이 무렵(1905년 5월)에는 또 멕시코 이민 1,033명이 있었다.

하와이 이민은 1905년 을사늑약과 함께 일제가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중단되었다. 일제는 미국본토와 하와이에 나가 있는 일본 이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인 이민을 금지시켰다. 하와이의 한인 이민들은 차츰 미국 본토로 이주하여 살면서 미주지역 한국독립운동의 모태가 되고, 1919년 4월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립공채’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독립기금을 보내는 등, 직 간접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였다.

스탈린에 의해 노령의 한인 강제이주

일제강점기 노령 연해주에 사는 한인은 1926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6만 8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역시 러시아지역 한국독립운동의 모체였다.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국 북경 교외 노구교에서 군사행동을 도발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선전포고도 없이 진행된 일제의 침략전쟁은 북경과 천진에 이어 국민당정부의 수도 남경을 점령하면서 3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을 살육하는 등 야만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자 소련과 중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8월 25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는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고려인)의 강제이주를 결정했다. 명분은 한인들이 일제의 첩자 노릇을 하게 된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한국독립운동가들이 러시아혁명에 크게 기여하고, 이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공로를 잊고 적대시한 것이다.

러시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고려인은 총 3만 6천 442가구의 17만 1천 781명이었다. 연해주지역 거주 고려인 전부가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이다. 여기에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도 포함되었다.

‘아닌 밤중에 봉두께’ 격으로 어느날 느닷없이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고려인들은 아무런 준비나 사전 지식도 없이 2만리, 8천킬로미터나 떨어진 반사막지대의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것이다. 스탈린의 야만적인 유색인종 이주정책이었다.

고려인들을 실은 열차는 10 ~ 11월의 추운 날씨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 한 달여를 달렸다. 난방이 안된 열차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7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1만 6천 272가구 7만 6천 525명, 가자흐스탄공화국에 2만 170가구 9만 5천 253명이 분산, 배치되었다. 두 나라는 소련연방공화국으로 고려인들이 도착한 곳은 천산산맥의 고원지대였다.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매우 추운 반사막의 황량한 지대여서,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원주민 이외에 러시아와 유럽인들의 유배지였다.

이주 다음 해인 1938년 스탈린의 특명으로 한국어를 소련내 소수민족의 언어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세웠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고려인학교가 러시아학교로 바뀌고 고려인 교사들은 실직자가 되었다. 초기에는 고려인들을 ‘적성민족’으로 간주하여 거주이전도 금지시켰다.

그런 상황에서도 고려인들은 운하를 파고 강물을 끌어들여 논을 만들어 벼씨를 심었다. 열대성 기후여서 비가오지 않더라도 만년설을 이고 있는 천산산맥에서 흘러온 하천의 물량이 풍부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고려인들은 끈질긴 노력과 억척스러운 적응력으로 차츰 중앙아시아 유배지에서 새삶을 영위하고 생활수준도 타 민족에 비하여 나아졌다. 적대정책이 풀리면서 도시로 진출한 동포도 많아지고 직업도 다양해지면서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다시 고려인 학교를 세우고 한글신문『레닌기치』를 발행하면서 동족 간의 우애와 정보를 교환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극장 수위로 연명하다가 1943년 10월 25일 크줄오르다의 자택에서 75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그의 유해는 지금도 크줄오르다에 남아있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여성위안부 동원

일본에 거주하는 150만여 명의 한인(조선족)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초·중기에는 돈벌이를 위해 떠나거나 유학·사업차 머문 사람들이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전에는 한국인 노무자들을 끌어다 탄광 등 위험한 사업장에 투입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는 강제 징용하여 전쟁에 필요한 막장 공사에 내몰았다. 1945년 3월말 현재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 수가 60만 4,42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징용알선’은 40만 2,867명, ‘모집’은 14만 8,807명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모두 강제성을 띤 징용이었다.

1947년 일본 대장성 관리국이 간행한 것으로 현재 도쿄학습원대학의 동양문화연구소에 소장된「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 따르면 1934년부터 패전 직전까지 외국인의 노무자 송출 등 징용의 경우 총 751만 6,234명을 동원했으며, 이 중 612만 8,183명은 일본 내 탄광, 광산촌과 남방 각지로 끌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많은 한국인이 포함되었다.

일제의 만행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한국 여성들의 일본군 성노예 동원이다. 1937년 8월 24일 고노에 내각의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이 발표되고, 1938년 4월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 한국 여성의 강제동원이 시작되었다. 1941년 11월에는 ‘국민보국협회령’이 새로 나와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성을 동원케 하고, 1944년 11월에는 ‘25세미만’을 ‘40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한국의 젊은 여성 모두를 겨냥하였다.

‘여자정신대’ 모집에는 일왕이 직접 서명했다. 1944년 8월 23일자로 공포된 일본법령 제 519호의 정신대 모집 법률에 일왕과 내각의 총리, 군수, 내무, 후생대신이 서명 날인한 것이다. 일본군이 동원한 종군위안부는 약 17 ~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80 ~ 90%가 한국여성들이었다.

여기서는 일본군에 끌려간 강제 징병과 남미 등의 정책이민, 독일에 보낸 광부와 간호사 등은 다루지 않았다. 지면 사정과 함께 일부는 국권회복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한말 국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망국민이된 우리 동포들은 강제이민 또는 강제이주를 당해 나라 없는 서름을 똑똑히 겪었다. 그들의 후예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뉴 노마드’의 정책으로 이들과 연계하고 통일민주국가를 건설한다면 교포들의 선대들이 조국 없는 망국민의 한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안 태 군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 회장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한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일제의 계산된 시각인 오전 10시 15분에 맞추어 사형된 것인데 그것은 그 시각이 5개월 전 이토의 사망시간이기 때문이다.

안 의사는 법정에서 이토를 쏜 15가지 이토의 죄목을 열거했다.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를 폐위하고, 군대를 해산하고... 그것은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죄목들이다. 안 의사는 독립군 의병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원흉 이토를 총살한 것이다. 그런데 일제는 하얼빈에서 여순으로 옮겨와 재판을 하고 사형에 처했다. 32살 젊은 나이에 안 의사는 순국을 하였다. 그의 유언은 “내가 죽거든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였다.

그러나 올해 순국 104년을 맞아도 그의 뼈대를 고국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안 의사의 뼈대를 고국에 모셔 와야 한다. 안 의사의 매장 장소는 안 의사 묘 참배자인 고 신현만 씨나 이국성 씨가 이구동성으로 안 의사의 묘가 있었던 장소라고 지목한 바 있다. 그외 그 장소가 안중근 의사의 묘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그것은 당시 검시의(檢屍

醫)의 후배가 쓴 회억록, 35년간 여순감옥구지박물관에서 근무한 판모충(潘茂忠)의 증언이다. 한 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데 이렇듯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검토하고 답사한 결과 이 장소는 99% 확신할 수 있는 곳이다.

만에 하나 시신이 100년여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없어졌을 경우도 있고 이미 타인의 손을 타서 발굴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흠이라도 모셔와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안 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를 발견하여 <안중근 순국 백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송한 바 있다. 더구나 이 다큐멘터리는 2010년 3월에 한국프로듀서연합회에서 주는 ‘이달의 PD상’ 까지 받았다.

이 다큐멘터리는 세 사람의 증언자가 남긴 지도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지목하는 한 곳을 추적한 프로그램인데 국가보훈처는 오픈 마인드로 이 지역의 발굴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스스로 그런 지역을 찾아내어 발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며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

나는 이 장소가 안 의사의 유해 매장지가 맞다고 우리 정부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열차례 가까이 제안을 했지만 의례적인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고 청와대 신문고에도 제안했으나 지금껏 마찬가지로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언제나 답변자는 국가보훈처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보다 먼저 안 의사 탄생 100주년인 1979년에 처음으로 발굴을 시도했다. 우리가 지목하는 그 장소를 찾아갔던 것인데 고구마 밭으로 변한 것을 보고 묘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별 성과 없이 돌아왔다.

2008년, 남북 공동으로 추진했던 유해 발굴 사업 때 북한 대표인 정종수가 이 지역은 아니라고 발표했고 국가보훈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지역의 발굴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배제한 채 10억 원 규모의 발굴사업을 벌였고 실패로 끝났다. 즉 엉뚱한 지역을 발굴했던 것인데 일본인 묘역을 발굴하여 도자기 파편만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발굴을 거부하고 있다. 직접 발굴하여 조사하지 않은 내용은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김영광 전의원이 그랬듯이 어떠한 증언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증언도 채택될 수 없다.

나는 여순감옥 동쪽의 상양가 공동묘지 최인묘역이 안 의사의 매장지라고 확신한다. 국가

보훈처는 2008년 발굴실패에 대해서 더 이상 부담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부담감을 갖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것은 이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것이다. 배전의 노력으로 발굴에 힘써 더 이상 안 의사에 대한 후손된 도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제 발굴하여야 한다. 99%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이런 제보를 더 이상 남북한이 모두 아니라고 합의했다는 말로 마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말하는 정확한 증거라 하면 일본의 보고문건이다. 그러나 이미 보고문건은 나나 국가보훈처도 갖고 있으며 이미 EBS에서 2010년 제작 방송한 <안중근 순국 백년> 다큐멘터리에 소개되어 있다. “안중근 금일 사형, 여순에 매장” 이 보고는 일제의 관동도독부가 본국에 보고한 문건이다. 더 확실히 매장지를 지목한 문건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미확인 문건이다. 이 문건은 본 사람도 없고 확률상으로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이 이미 안 의사의 매장 보고 문건이 있기 때문이고 같은 일로 다시 보고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러한 문서를 본 사람도 없거니와 실재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그러한 비밀문건이 나와야만 발굴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은 발굴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일이다. 관계자는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이 제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본도 공식적으로 그런 문건이 없다는 것이고 간혹 우호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관료들은 사실을 모호하게 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들의 태도를 보아서야 대답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답할 기회가 온다면 “찾아보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해버리면 그만인 상황이다. 그런 저런 일로 벌써 안 의사 순국 104주기를 맞았다. 그런데도 국가보훈처는 감나무 밑에 누워 책임감 없는 일본인들의 대답을 기다리며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은 결국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계속해서 거론된 안 의사의 매장지는 결국 한 번도 발굴되지 않고 배제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모두가 알면서도 발굴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지금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올해 105주년을 맞는 안 의사의 의거일인 10월 26일 전까지 가능하다면 유해발굴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열망은 우리 안중근빼대찾기사업회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안중근빼대찾기사업회의 목표는 안중근 의사의 빼대찾기와 환국이다.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할 수만은 없다. 지금이라도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단 1%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굳이 이야

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이런 마이동풍 식의 태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그간의 안 의사 유해 발굴 관련 경위다.

- 1910년 3월 26일 안 의사 순국, 일제에 의해 감옥 뒷산에 매장
- 1948년 김구 선생, 김일성과의 회담 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제안
- 1970년 순국 50년, 박영록 국회의원이 유해 환국을 추진하며 다시 거론
- 1979년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 발굴단 여순감옥구지묘지 현지조사
- 1984년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 환국을 추진 계획 발표, 재중공 독립 투사유해봉환추진위원회 구성
- 1986년 북한 유해발굴단 두 번째 조사
- 1989년 10월 한국정부 조사단 여순 방문
- 1992년 중국과 수교 후 1998년 후진타오 부주석의 유해 발굴협조 의사표시
- 2000년 3월 천주교단 안중근 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송영순과 사이토 미치 노리 중심이 된 안중근의사유해발굴위원회 발족
- 2000년 정의구현사제단 중심으로 안 의사 유해 발굴 및 환국추진위원회 발족
- 2001년 김영광 의원 중심의 안 의사 유해봉환위원회 발족
-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에게 협력 요청
- 2004년 1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싱에게 요청, 최서면 안중근의사 묘역 추정위원회 활동
- 2005년 10월 정부 최서면의 주장 반영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추진사항 발표
- 2006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유해 발굴 입장 표명
- 2007년 3월 한중친선협회 이세기 회장 발굴 예정 발표
-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안중근 의사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회담에서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합의
- 2008년 1월 외통부 유해 발굴 작업 중국에 협조 요청 발표
- 2008년 3월 북한 유해 발굴 불참의사 통보
- 2008년 3월부터 4월 27일까지 유해 발굴 착수, 실패
- 2010년 안중근빼대찾기사업회 발족 현재 활동 중(이상 신운용 논문 '안중근유해의 조사.

발굴 현황과 전망' 참조)

참으로 지난한 안 의사의 유해찾기의 역사이다. 1990년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알게 된 안 의사의 유해찾기는 내게 민족적 염원 이상으로 와 닿았고 20여년의 시간을 보내고 2010년 3월 26일 드디어 안 의사의 매장 추정지를 추적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송했다.

방송 후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를 찾아 담당자에게 우리가 찾아낸 증거들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소식은 없고 시간만 흘러갔다. 안 의사 순국 100년 땅 속의 뼈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가보훈처장과의 대화에 발굴을 촉구하는 제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답변은 항상 똑 같았고 결국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우리는 더 기다릴 수만은 없어 안중근빼대찾기사업회를 결성하고 중국일려여순감옥구지 박물관을 찾아 사업회 차원에서 발굴을 건의하였다. 당시 관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우리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1만 명 서명을 받고 모금에 나섰다. 네티즌들이 모금을 해주는 사이 우리도 가만있을 수는 없어 발굴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추운 겨울 거리 모금을 병행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통일부까지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 우리의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그들로부터의 연락은 없었다. 게다가 도움을 청했던 중국박물관 화문귀 관장의 퇴직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져 우리의 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묻혀버릴 수도 있구나 싶었지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대국민 성명서 배포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한 사람에게라도 이 사업을 더 알려서 우리의 숙원인 안 의사의 뼈대를 찾아 조국에 모시고자 함이었다.

2011년 3월, 의정부 교구의 허윤석 신부와 의논하여 "빼대찾기"란 순 우리말로 "안중근빼대찾기사업회"를 발족하고 김호일 전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을 이사장으로 모셨다. 수많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알림 활동은 계속되었고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이 목표인원인 만 명을 돌파하고 이 사업은 본격화되었다. 모금을 시작하였고 중국을 방문하여 이 사업의 대상자와 회담을 갖고 드디어 올해를 맞게 된 것이다.

안 의사의 유해 진위 구분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영원한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뼈대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상황이다.

일단 안 의사의 시신은 당시 다른 잡범과 달리 관에 안치되어 매장되었다. 다른 잡범들은 나무통 속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매장되어 일단 구분이 된다. 안 의사의 매장 추정 장소는 30평 규모로 축소되었으니 그 지역에서 나올 유골은 불과 수십 구 남짓이다. 관에 안치된 시신은 안 의사 뿐이거나 기타 많아도 두 세 구일 것이다.

두 번째, 당시 잡범을 비롯하여 모든 매장자의 시신의 이름을 써서 유리병 속에 넣어 함께 매장하였다. 그러므로 안 의사의 관속에도 유리병 안에 안중근이라고 이름이 나올 것이다. 십자가가 함께 넣어졌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 또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순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례가 그렇고 다른 사체의 사진 증거도 있다. 일본의 주도면밀함을 주장하시는 분들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의견 또한 검증할 수 없는 추정일 뿐이다. 나로서도 발굴하기 전까지 모든 게 미지수이니 발굴하여 보는 수밖에 없다. 발굴과정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찍어둘 것이며 유리병이 나오면 바로 위성중계로 안중근 의사의 뼈대찾기 사실을 방송할 것이다.

세 번째, 시신의 부패정도에 따라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왼손가락의 단지 상태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백 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지수다.

네 번째, DNA 분석이다. 이것 또한 부패 상태에 따라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 단지 그곳 토양이 산성기가 약한 곳이라니 기대해볼 뿐이다.

이런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판정 결과 안 의사의 뼈대임을 확인하여 야할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카메라로 녹화내지는 생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추호의 불미스러움이나 의문을 남기지 않고 현장에서 우리 사업회 김호일 이사장이나 다른 전문가 이사진에 의해 판명될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찾기는 온 민족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안 찾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지역에 안 의사가 매장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지난 104년 동안 이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안 의사가 처음 매장된 지역이기 때문에 꼭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개인이나 민간 사업회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 일은 국가가 나서면 되는 일이다. 2014년 하얼빈에 안중근 기념관이 들어서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협조 아래 안중근유해발굴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일념과 지난 5년간의 우리의 활동과 발굴의 타당성, 매장

추정 지역의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책을 발간하였다. 발굴 모금을 하였지만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모금액으로 출간을 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포기와 무관심으로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다. 부디 여러분의 관심과 관련 공무원들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내용 중에서

※ 최초로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 매장 추정지 사진!!

1950년대 시기의 휘순감옥 공공묘지와 등산포 일대 사진. 공공묘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 사진은, 왼쪽 중간 상단 부분에 봉분으로 주변이 둘러싸인 무덤이 눈에 띈다. 이 사진은 최초 공개되는 것으로 현재의 기독교 묘지 앞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며, 현재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합성하면 묘지의 정확한 위치도 추정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1950년대 휘순 공공묘지

항일독립운동가 이경채(李景采)의 생애 연구 : 광주학생운동에서 광복군투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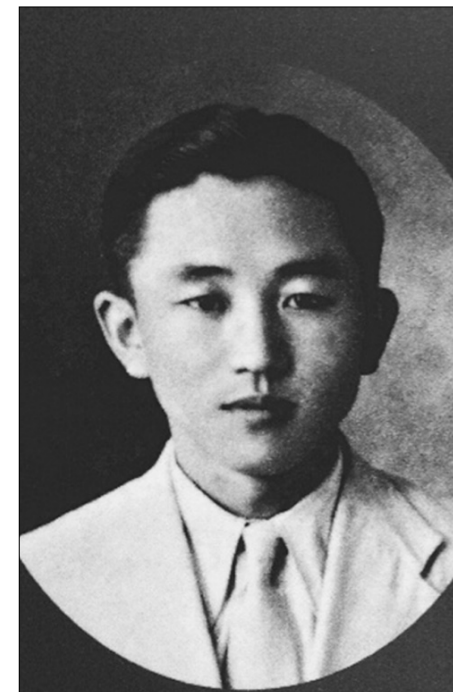
김 홍 길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교수

광주고보출신 항일운동가 이경채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1928년 광주고보 항일맹휴의 도화선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경채는 광주학생운동 이후 일본유학생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김판수(金判守), 이중환(李中煥), 이일휘(李一輝)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1945년 조국이 해방이 될 때까지 항일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경채는 1910년 4월 6일 전남 광산군 송정면 송정리 612번지에서 이성륜(李成倫)의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경채의 자필회고록에 따르면 이경채는 어릴 때는 서당에 다녔으며 아홉 살 무렵에 3.1운동 소식을 부모에게 전해 듣고 민족의 비애를 느끼면서 항일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경채는 10살 때인 1920년 4월 송정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1923년 3월 월반시험에 통과하고 4학년을 통과해 5학년이 되었고, 1924년 3월 5년제 송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4년 4월 광주고보에 입학했다. 당시 광주고보에는 조선인교사로 광주

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교원강습소 교원을 지내다 광주고보 학생들을 가르친 송홍(宋鴻) 선생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문시간을 이용해 조선의 역사와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그는 1926년 광주고보 3학년 재학 중에도 틈틈이 동지들과 독서활동을 하면서 사회과학연구 활동에도 참여했다.

1. 이경채 항일격문사건과 광주고보 대맹휴



이경채는 재학 당시 주로 청년운동에 관여되어 있던 박병하(朴溟夏)를 비롯해 윤해병(尹海炳), 양태성(梁泰成), 유병후(柳炳厚), 김무삼(金戊三)등과 어울렸으며, 송정리 청년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했다. 광주고보 5학년이었던 이경채는 1928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송정청년동맹의 일원으로 ‘대일성토문 및 조선독립선언’이라는 격문 1천여 장을 작성하여 광주시내의 농업학교, 사범학교, 광주여고보 부근에 살포하거나 부착하고, 전남 보통학교와 경찰서 등에도 우송했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자 일경은 4월 하순 경 송정청년회 및 광주청년동맹의 한길상(韓吉祥), 지창수(池昌洙), 강해석(姜海錫), 조칠성(曹七成), 박승남(朴承南) 등을 검거해 조사했다. 그 후 약 50일 가까이 송정격문사

건을 조사하던 광주지방법원 검사국 내량(奈郎) 검사장은 이경채 연행경위를 광주고보 시라이(白井) 교장에게 통보했다. 당시 맹휴에 참여했던 김종호의 증언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이경채가 결석했는데 담임이 출석을 부를 때 이경채를 빼놓고 부르자 학생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6월 10일 광주고보 교장은 이경채의 아버지를 학교로 불러놓고 권고 퇴학을 시켰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4, 5학년 반장들이 서로 모여서 상의를 하고, 6월 15일 학생

대표단이 이경채와 가족을 면담해 위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학교당국은 학생대표단의 요구를 거부했다.

학생대표들은 학교당국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학내 문제를 걸고 맹휴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때마침 6월 중순경에는 광주고보 재학생 임주홍 등이 전선연식정구대회 전남 대표로 본선에 출전해, 결승전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학교당국은 운동경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본격적인 맹휴는 4,5학년 반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11명이 ‘이경채 퇴학사유를 밝히라’,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연식정구대회 우승자였던 임주홍도 일본에서 열리는 전일본선수권대회 참전을 거부하고 맹휴에 가세하면서 맹휴 열기는 더해만 갔다.

교장 시라이(白井)는 6월 24일 학부형회를 소집해 학생들의 사상 선도와 풍기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며 다과회를 진행하며 학생사태를 무마하려 했으나 학부형회의는 학교당국을 성토하는 장이 되고 말았다. 이날 학교당국에 학부형회의가 열리자 4, 5학년 반장 11명이 다과회가 열리는 장소로 들어와 교장과 학부형들 앞에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의 진정내용은 ①1927년 5월 2-3학년들이 요구한 물리, 화학교실 신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기만이며, ②광주고보에 사용될 예산을 일본중학교에 양보한 이유와 광주중학교에만 물리, 화학교실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할 것, ③조선어 서적과 한글신문을 구입할 것, ④성실한 수업을 요구했다.

당시 학부형회는 당시 학교 운영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었다. 고보 학부형들은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유력자들이 많았다. 학부형들은 교직원들을 퇴직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 김용환을 임시의장으로, 정운탁(鄭雲卓), 이은탁(李銀卓)이 서기, 감찰을 노석정(盧錫正)으로 선임했다. 그후 오기홍(吳基洪), 임주완(林周腕) 등이 추가로 학부형 대표를 맡았다. 학부형들은 학생들의 진정서가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은 ①다음해에는 특별교실(화학, 물리교실)이 설치되도록 총독부, 학무국, 도학무과, 학교당국에 건의하기로 하고, ②이경채군이 무죄방면 되면 복교시킬 것, ③학교에 배정된 교비를 제대로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그런데 학교는 6월 25일 진정서를 제출한 김시성, 김기권, 김영찬 등을 비롯한 4, 5학년 반장 11명을 근신 처분했다. 이날 밤에 4,5학년생들은 2,3학년들에게 연락을 취해 다음날부터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이튿날인 6월 26일 2, 3학년들은 2,3학년 학생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2차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에 합류했다. 2, 3학년의 진정서 내용은 ①교우회

의 내용을 확충하고 교사를 감독으로 맡기고, 교우회의 활동에 대해 학생 일임, ②교장은 기만적인 행동에 대해 반성할 것, ③무자격 교원인 장곡(長谷), 이(李), 대삼(大森), 희야(姬野) 등 4명의 교사를 사직시킬 것, ④지전(池田), 도변(渡邊)교사의 교육자적 양심과 반성을 촉구, ⑤학교는 무도장(武道場)을 신설하고 전임강사를 초빙할 것, ⑥학교는 학생에게 고압적 행동이나 퇴학, 정학, 근신을 불충분한 이유로 감행치 말고, 이경채의 무죄 방면시 복교시킬 것, ⑦조선인 본위 교육을 위해 조선인교원을 채용하고, 조선역사와 조선문법을 가르칠 것, ⑧4, 5학년 급장들에 대한 근신조치를 취소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또 다시 동맹휴학을 주도한 5학년 나봉현(羅鳳鉉), 김부득(金富得), 정동화(鄭東華), 서두평(徐斗枰), 이채래(李採來), 유기룡(劉起龍), 김영찬(金泳燦), 양병진(梁炳鎭 혹은 梁炳祐), 김기수(金基壽), 허창두(許昌斗), 이종표(李鍾杓), 4학년 고인석(高麟錫), 이대기(李大基), 김창주(金昌柱), 김시성(金時成), 최규창(崔圭昌), 변진설(邊進榑), 김시철(金時喆), 김재을(金在乙), 최창진(崔昌鎭), 신도순(申道淳), 3학년생 오쾌일(吳快一), 정우채(鄭瑀採), 김병욱(金炳旭), 2학년생 박현규(朴賢奎), 김시탁(金時卓) 등 총 27명을 퇴학시키고, 박세영(朴世英), 김기권(金基權) 등 281명을 무기정학처분했다.

6월 27일 1학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장은 27명의 학부형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학부형을 통해 학생들의 반성을 유도했다. 그러나 학부형의 반응은 싸늘했다. 학교장의 소집에 응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형은 2명에 불과했다. 6월 29일 이후 1학년들까지도 7월 1일부터 맹휴에 참여할 기세를 보이자 학교는 무기한 휴교상태에 들어간다. 6월 30일 학부형들은 학생퇴학처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위해 김용환, 송태환(宋台煥), 오기홍(吳基洪), 강태성(姜泰成), 노석정(盧錫正) 등이 5인위원회를 결성해 7월 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기로 했다.¹⁾ 6월 30일 광주시내에의 광주고보 동창회장 최동문(崔東文)을 비롯해 전창모(全昌模), 장재성(張載性) 등 10여명이 학교강당에 모여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 학생들이 요구한 물리, 화학, 교실 신설이나 학생자치회(문예부, 학예부, 변론부) 허용, 무성의한 교사 경질, 퇴학처분 학생들이 보증인을 데리고 오면 복교시킬 것 등 5개항을 제시해 절충했으나 거부당했다. 7월 1일 오후 3시부터 학부형 40여명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날 학부형회의에서 김명섭(金暎燮)을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교섭위원 대표 강익수(姜益洙)의 학생들과의 교섭전말이 보고되었고,

1) 동아일보 1928년 6월 30일, 7월 4일,

이병소, 고광섭, 오기홍, 강익수, 김영섭 등의 교섭위원을 통해 학교당국과 교섭했으나 학교 당국은 퇴학처분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강경일변도였다. 이에 학부형들은 임시사무소를 수 기옥정의 송태환(宋台煥)의 집으로 정하고 양병조, 노석정, 강익수, 송태수, 오기홍, 강태성, 변순기, 최영기, 김용환 등 9명을 대책위원으로 선임해 활동하기로 했다.

맹휴는 재학생, 학부형, 졸업생이 관여되며 더욱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광주농업학교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연대맹휴가 발생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맹휴이탈자를 감시하는 경비대를 결성해 활동했다. 맹휴가 시작된 지 며칠 후인 6월 30일 저녁 2학년생 홍모군이 담임선생인 일본인교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 발각되어 사직단 부근으로 끌려가 물매를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직후, 일경은 맹휴를 이끌었던 김시성(金時成), 서두평(徐斗平) 등을 7월 1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연달아 11명을 체포하고 그 중에서 조기석(趙璣錫), 김종호(金鍾浩), 허진환(허진환), 주재성(朱在性), 정재억(鄭在億),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 등을 폭력 및 상해행위로 검사국에 회부했다. 7월 5일 1학년들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학교당국은 1학년들의 등교를 금하고 휴교조치를 내렸다. 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맹휴참여학생들에게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학부형들에게도 통지서를 보내 회유했다. 7월 10일 맹휴를 주동하다 퇴학당한 4,5학년생들인 정동화, 변진설, 박세영, 김기권, 이만동(李萬童), 서재호(徐在皓),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은 최규창의 하숙집 진남여관(鎭南旅館)에서 모여 결속을 다짐하며 조직적 맹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중앙본부를 결성했다.²⁾ 이 과정에는 광주청년동맹 서재익(徐在益)등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에 있던 등사기를 제공해서 격문작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2. 맹휴의 여파와 광주학생운동

1928년 광주고보 맹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무엇보다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새로운 세대를 출현시켰다. 1926년 11월 3일 결성된 광주학생비밀조직 성진회(醒進會)에 저학년으로 참여했던 최규창, 정우채, 김기주를 비롯해 김시성, 김기권, 정동화, 여도현 등 수많은 학생들이 1928년 맹휴과정에서 퇴학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사

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1974, 123-127

회운동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한다. 맹휴 이후 다수 학생들이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각종 비밀연구회에 참여했다.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광주여고보에도 비밀연구회가 결성되었다. 이런 흐름은 1929년 6월 학교별 독서회와 지역차원의 독서회 중앙부 결성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광주청년동맹 장석천, 동경유학생 장재성 등은 이러한 학생층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역사회의 청년운동과 항일운동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우고자 했다. 1928년 맹휴 퇴학생 중 일부는 복학해서 학내 운동에 참여했으며, 김기권의 경우 구속되었다가 8개월 만에 석방된 후 장재성 빵집 옆에 광성 문방구를 나란히 세워놓고 학생소비조합을 결성해서 학생운동을 지원했다. 게다가 비밀연구회와 독서회활동을 통해 단련된 학생층이 대거 등장하면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학생투사들의 등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경채는 광주법원 검사국 미결감방에 수감되어 있다가 1928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으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개성소년형무소로 이감되어 수감되었다. 이경채는 일본 황태자 아키히토의 즉위기념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단축되어 1929년 10월 20일 석방되었다. 석방된 지 10일 후에 나주열차통학생사건이 발생했고 2주일 만에 중등학생 중심의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났다. 1차 시위운동이 일어난 후 광주지역 청년계와 학생계는 빠르게 대응본부를 결성해 활동했다. 장석천, 장재성, 국채진, 박오봉, 강석원, 강영석, 나승규, 임종근 등의 청년계가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독서회중앙부 및 각급 학교별 독서회 출신과 학급 간부들이 시위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광주고보에서는 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노병주를 비롯해 오쾌일, 정명섭, 김향남, 김안진, 박기석, 조계현, 송만수 등의 학생들을 비롯한 수백명의 학생들이 시위운동에 참여했으며, 광주사범학교 황상남, 이신형, 조길룡, 광주농업학교의 조길룡, 김남철, 최태주 등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이경채는 출소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태라 시위운동에 적극 나설 형편은 되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11월 10일 일요일 오후 이경채는 광주여고보에도 연락을 취해 학생대표에게 최순덕을 비밀회동장소인 금계리의 한 움막집에서 모여 각 학교의 학생 대표 7-8명과 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학교별 백지동맹 및 동맹휴학이 권유되었다. 11월 12일 2차 가두시위가 끝난 뒤 이경채는 일경에게 체포되어 1개월간 구금되어 조사받고 석방되었다. 그는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1929년 11월 말

부터 1930년 겨울이 되도록 광주학생사건과 관련한 여파는 계속되었으며 1년 넘도록 검거 소식과 재판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광주형무소와 대구형무소를 오가며 고초를 겪었다. 나주역 사건의 주역 박준채는 11월 4일부터 광주경찰서 소환조치로 조사받아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한 달 넘게 구류생활을 했고, 박기옥 역시 지속적인 감시에 시달렸다. 한편 백지동맹을 이끌던 최순덕은 친구 집에서 은신해 있다가 검거를 피할 수 있었으나 장재성과 장매성 오누이, 암성금자, 이광춘 자매, 김보섭과 김만섭 형제 수많은 인물들이 고초를 겪었다. 11월 12일 2차 시위운동 때 자신의 이름으로 격문을 만들었던 오쾌일은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동경에서 임주홍, 박세영 등과 더불어 유치오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1930년 5월 말 출동한 전남경찰부에 체포되어 연행되기도 했다.

3. 일본유학과 상해망명, 임시정부

이경채는 하루가 멀다고 감시하는 일경의 괴롭힘을 모면하고자 1931년 2월 동경으로 건너갔다. 그는 와세다대학 전문학교(2년제) 법과(야간제)에 입학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이경채는 유학생활동 중 신문배달과 전철역 막노동을 하며 자신의 하숙비와 등록금을 마련했다. 얼마 후 이경채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뒤 퇴학당했거나 옥고를 치르고 일본으로 건너온 문두재(文斗載), 양태성(梁泰成), 유병후(柳秉厚), 윤창하(尹炳夏) 등과 유학생활동의 어려움을 달래며 회합했다. 그는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겉으로는 친목모임을 하면서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던 유학생들과 어울려 의기투합을 하면서 기회가 오면 다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국내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상해임시정부와 연락했다. 1933년 4월 와세다대학 단기 전문학교 법학과 야간반을 졸업하려 할 때 일경은 이경채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가택수색을 했다. 결국 이경채는 다른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숙소를 옮겨가면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임시정부 파견원의 도움으로 1933년 4월 28일 상해 밀항에 성공했다. 당시 상해는 1932년 4월 윤봉길의거 이후 임시정부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서 임정요인들은 검거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경채는 1933년 6월 상해 프랑스조계지 인성학교에서 교장 선우혁의 도움으로 김판수(金判守)라는 가명으로 한글교사로 활동했다. 당시 인성학교는 학생 60여명이 있었지만 교사는 중국인 1명을 포함해 4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상해는 일본군에 점령당한 상태로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

그는 1934년 7월 상해임시정부를 따라 항주로 이동했다. 마침 항주에는 전남 함평 출신의 임시정부 교통부장 김철(金澈)이 활약 중이었다. 그는 김철을 만나 장래를 상의하다가 이중환(李中煥)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후 학사로(學士路) 부근의 임시거처에서 송병조목사 등이 맡고 있던 임시정부 기관지 한국독립보(韓國獨立報) 발간에 참여했다. 한국독립보는 월간지 소책자로 4면은 중국문, 3면은 한글판으로 작성되었는데 이경채는 이세창(李世昌) 등과 함께 주로 문서교정업무를 맡아서 자료가 완성되면 인쇄 업무를 맡았다. 항주에서의 이경채는 임시정부요인인 김철, 조소앙, 김두봉 등과 인연을 맺었으며, 한국독립보를 발간해 구미동포와 중국요인들에게 배포해 임시정부의 정당성과 일본인의 학정을 알려냈다. 그런데 1935년 8월 항주일본영사관이 중국인 밀정을 통해 한국독립보 비밀장소를 탐지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이에 송병조 목사의 제의로 독립보 발간을 중단하고 흩어졌다 재회하기로 하였으며, 이경채는 다시 상해로 돌아와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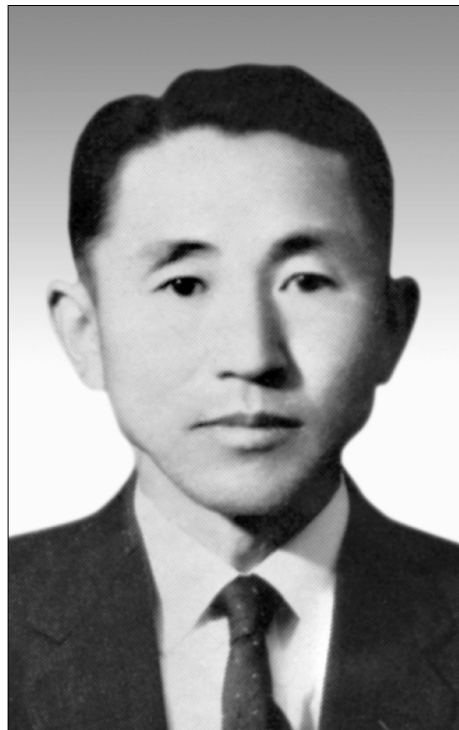
4. 중국에서 항일투쟁의 전개

1935년 국민당정부는 겉으로는 일본육사와 독일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개석의 군사고문 출신인 장백리(蔣百里)를 책임자로 하여 중국군사위원회 산하 일본연구소를 설치하여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이경채는 상해에서 중국혁명가 장고산(張孤山)을 만나 일본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중국이 숙명적으로 일본과 맞서는 국가임으로 일본을 타도하는 활동이 한국독립의 첩경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중국군에 투신해 항일투쟁을 계획했다.

당시 이경채는 장백리 소장에 의해 이일휘(李一輝)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계속 중국군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연구소에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귀환한 유학생 20여명과 민간인학자 6명 등이 22명~25명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일본의 각종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을 다루었고, 이경채는 주로 일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문구상 의문점이나 분류정리 활동을 맡았다.

그 후 이경채는 1936년 9월 장백리의 추천으로 남경에 있던 중국육군군관학교에 13기로 입교했다. 중국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군사훈련을 마치고 중국군 장교로 배속될 예정이었다. 그는 중국 국민당 군대 육군 제11사단에 배속되어 항일전투에 참전했다. 그런데

중일간의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자 남경군관학교 사관생들은 남경에서 사천성 동관으로 이동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충돌이후, 8.13상해침변이 발생하면서 이경채는 군관학교 교육을 중단한 상태에서 호북성 무창(武昌)에서 특명을 받아 1937년 10월 초 중국 육군 제15집단군의 진성(陳誠)장군이 이끄는 제11사(유재명(柳際明) 중장)의 교관으로 배속되었다. 그는 사천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상해부근 가정현(嘉靖縣) 외강(外岡) 부근에서 일본군규모 부대와 대규모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중국군과 일본군은 이중 삼중으로 뒤섞여서 6일간의 치열한 혈투를 벌였으며, 결국 중국군은 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남기고 후퇴했다. 당시 이경채는 2백명정도의 생존자와 부상자와 함께 탈출하여 15단 군사령부로 복귀했다. 그 후 일제말까지 국민당 정부군 진성장군의 휘하 부관으로 활동하면서 수 십 회의 교전에 참여했다. 그는 1945년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전선에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 내전 당시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중국군 중교(중령)까지 진급했다.



5. 19년만의 귀국과 여생의 기록

이경채는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암투가 끝난 후인 1949년 12월 1일 1년간의 휴가를 받고 19년 만에 고향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조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되었고, 남북한은 그가 귀국한지 반년 만에 6.25 동란을 겪고 말았다. 그는 고향에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당했으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인해 주변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도 있었으나 이미 중국본토가 공산화된 상태였고, 장개석의 국민당정부가 이끄는 대만으로 특별히 가야 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고향에 눌러앉아 농사를 지으며 칩거생활을 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경채는 생전에 전형적인 항

일투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근검절약하고 청렴한 선비의 모습도 가진 사람이었다. 1957년 3.1절 기념식을 계기로 결성된 광주학생독립운동희생자동지회가 결성되면서 광주학생운동 발발 30년만에 과거의 여러 동지들과 재회했다. 오랜 칩거를 끝낼 무렵에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정부가 들어섰으나 불과 9개월 만에 5.16이 발생했다. 이경채는 군사정부산하에서 광산군수와 경찰서장 등이 강압적 권유를 받아 재건국민운동광산군촉진회 회장을 맡기도 했으나 자신의 평소 성격에도 맞지 않아 4개월 만에 사퇴하고 말았다. 그는 당시 지조를 지키고 살지 못할 바엔, 세상이 깨끗하지 않을 바엔 혼자라도 착하게 살겠다는 뜻을 세우고 무명생활로 돌아갔다. 1974년 유신체제가 등장할 무렵 이경채는 또 다시 각종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직책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나 이를 한사코 마다한 그는 조용히 여생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경남 양산군 기장면 석산리로 이사를 가서 양어장을 운영했다. 그후 1978년 3월 25일 68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다. 이경채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1980년 대통령표창을 받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제2묘역 1086호에 선생의 묘가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라잡고 있다. 이경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세대들이 1930년대 국외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조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작은 글을 계기로 국내에서 대륙으로 이어진 항일운동의 숨결을 폭넓게 다루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군자금 모아 광복 꽃피운 “한영신”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노란봉한 땀 한 땀 자수 놓아
수예품 만들며 다진 마음
은비녀 빼고 머리카락 잘라
독립의 꿈을 키우던 마음
여자들이 움직여야 산다
여자들이 움직여야 산다
독려하며 앞장서서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든 이여
임이 모은 군자금

독립의 밑거름 되어
고귀한 광복의 꽃으로
피어났어라

한영신 (韓永信, 1887. 7.22 ~ 1969.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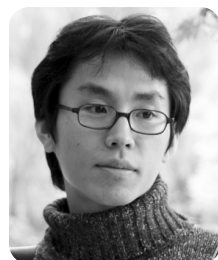
1920년 11월 4일 조선총독부경찰총장은 비밀결사 조직인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을 검거하였다. 당시 한영신 애국지사는 회장으로 활동 하였는데 그 죄목을 보면 “피고 한영신은 1919년 6월 하순 김보원, 김용복, 김신희 외 다수를 평양 장대현에 있는 집으로 불러 모아 조선의 민심 동향 및 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에게만 독립운동을 맡길 수 없다고 하면서 부인이라고 수수방관 하는 것은 동포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고 하면서 잡아 가두고 고문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 왜곡된 역사를 시를 통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시로 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시집으로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 4권 시화집 『나는 여성독립운동가다』,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사쿠라 불나방』 등이 있으며 우리말 속에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외 다수. (누리편지 : 59yoon@hanmail.net)



음악가의 삶 <서칭 포 슈가맨>과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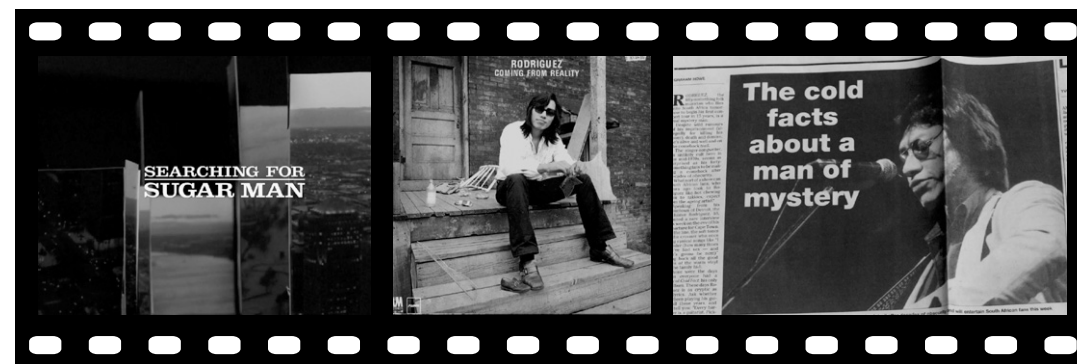
이 두 희
자유기고가

다큐멘터리 영화 <서칭 포 슈가맨 Searching for Sugar Man>(2011)은 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설적인 히트 앨범을 기록했던 가수 '슈가맨' 로드리게즈의 이야기와 그의 숨겨진 삶을 찾아가는 영화이다. 그리고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20 Feet from Stardom>(2013)은 미국 팝 음악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가장자리를 지켜왔던 백업 가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두 영화 모두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국내 개봉까지 할 수 있었던 작품들로서 공통적으로 음악과 가수들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다. 정치 시사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서 관객들에게 친숙한 대중문화의 세계와 그 뒤편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작업으로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의 배경은 197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한다. 미국의 어느 락 가수의 앨범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우연히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노래들은 곧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와 반항의 상징이 된다. 정부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해적판 음반은 엄청난 인기를 기록하며 전설로 남는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무도 그 가수 '슈가맨'의 정체를 알지 못하며 단지 그가 비운의 사고로 사망했으리라는 소문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연히 만난 그의 팬 두 명이 미국에서 슈가맨을 찾아보기로 했을 때부터, 다시 이 영화는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노래의 주인공이 미국에서는 거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사라진 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의 인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평범한 건설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와 연락이 닿는다. 하지만 슈가맨 자신은 그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팝 음악의 역사를 다른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영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은, 누구나 알고 있는 팝 음악 스타들의 무대 한편에서 그들을 도와 노래를 부른 백업 가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화는 달린 러브를 비롯한 그녀의 동료 백업가수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넘어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던 평생의 도전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돌아보고 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대중문화계에서 유색인종의 역할이나, 소울 음악의 문화적 배경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스타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자신의 꿈, 자신의 음악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를 영화는 그려낸다. 특히 영화는 시대를 대표했던 팝 스타들과 함께 했던 공연 장면들과 백업 가수들 본인의 인터뷰로부터 화려한 무대와 현실이 어려움 등 명암이 강한 대조를 잘 담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음악을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 영화 <서칭 포 슈가맨> 중에서



영화 <서칭 포 슈가맨>의 전반부는 전설적인 슈가맨의 히트 앨범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영화는 한 가수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에게 음악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관객들의 스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일방적인 시선이 아니다. 스타들 역시 팬들의 시선에 의지하고 같은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슈가맨은 그러한 관심의 대상, 인기를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 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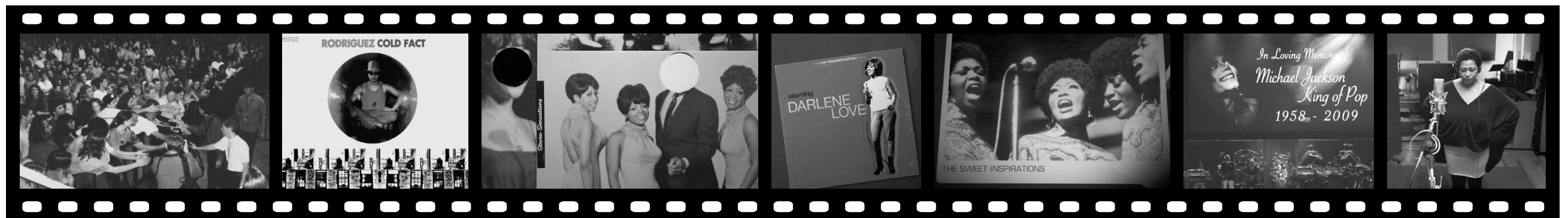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의 백업 가수들에게도 역시 스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부러움과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일이다.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백업 가수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래를 부르하고자 했던 그들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욕망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도전과 시련의 과정 후에 그들 스스로 깨달은 것은 대중들의 인기나 유명세 보다는 그들에게 있어 음악의 의미였으며, 음악은 그들에게 하나의 소명이었던 것이다.

두 영화는 모두 팬들과 가수 사이의 엇갈린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대중문화에서 팬들이 스타를 바라보는 기대와 부러움의 시선은 스타를 스타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가수는 자신의 음악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영화는 던지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 그 욕망의 시선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

를 통해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두 영화는 모두 현실을 낯설게 바라보는 방법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극영화가 제시하는 허구의 세계는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이지만 그렇게 낯설 뿐인 세계는 아니다. 오히려 관습을 벗어나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화적 허구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식적 극적요소들과 함께 잘 알려진 신화와 전설을 반복하기도 하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관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에 반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무정형의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담으며 간략한 줄거리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장르라는 영화적 형식의 관습에 자유롭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익숙하고 낯선 세계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한다.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의 내용이 곧 현실이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결국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담을 뿐이며 관객이 현실을 보고 있다는 믿음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객은 영화에서 투사된 세계를 스스로 재구성하고 현실로서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때 영화는 감독과 관객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일이 때로는 수고스러우면서도 낯선 경험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도 세계는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다 넓고 깊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나는 이유로서 충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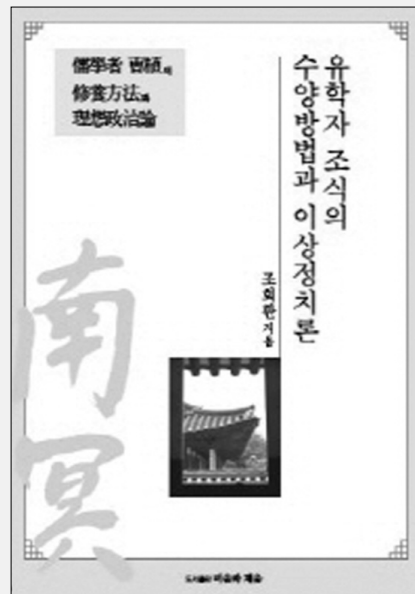
▲ 영화 <서칭 포 슈가맨> 중에서

▲ 영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 중에서



유학자 조식의 수양방법과 이상정치론

(조회환 著, 비움와 채움 刊, 312쪽)



《유학자 조식의 수양방법과 이상정치론》은 외국어대 중문과 명예교수인 지은이가 남명 조식의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한 성현들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다. 지은이는 유학을 바탕으로 하여 남명이 내세운 수양방법과 이상정치에 대한 이론을 유학적인 관점과 남명 조식이 제기하거나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 책은 유학의 시조인 공자와 맹자의 이론과 주장을 재정리하면서 남명 조식 선생이 이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유학자들이 말한 자기 수양과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논한 말들을 제시하면서 지은이의 견해를 곁들여 제시한 책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은이는 중요하거나 현실적으로 관심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 피력한 견해를 ‘한 마디 거들기’라는 표제를 달아 현실문제에 대한 지은이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또 몇몇 유가적 담론은 별도의 지면에서 저명한 외국 학자들이 말한 내용(영문)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책은 남명 조식이 신봉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혁을 주장했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한 성현들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다. 유교는 공자 이래 2천 수 백년 간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주류(主流)사상이나 국교로 추앙받았다. 가끔 단기적으로는 도가사상이나 법가사상에 의하여 주류의 지위를 놓친 경우도 있었으나 그때도 유교는 여전히 상당한 존중을 받아 부류(副流)사상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1949년 10월, 신중국 탄생 이후 마르

크스주의-레닌주의[馬列主義]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사상은 또다시 냉대를 받았다. 그러나 모택동 집권 말기 10년간에 일어난 ‘문화대혁명’(1966-1976)이 하나의 커다란 과오로 지적되면서부터 차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유교사상은 부활하였다. 2천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 각국에 공자학원(孔子學院, 일종의 유교연구소 겸 홍보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선양에도 힘쓰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중국은 정신적 및 정치적으로 유교사상을 회복했고, 물질적 및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노선을 추구하면서, 꾸준히 수정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의 가치가 확실히 되살아난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안태근, 김월배 著, 스토리하우스 刊, 296쪽)



안중근 의사의 유해 한국은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유해 한국 프로젝트의 첫걸음,
안중근 의사 매장지를 찾아라!

※ 최초로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
매장지 관련 사진!!

본서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
고 주장하는 매장지와 관련된 사진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1. 본문 37쪽, 안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 사진

1950년대 시기의 뤼순감옥 공공묘지와 등산포 일대 사진. 공공묘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이 사진은, 왼쪽 중간 상단 부분에 봉분으로 주변이 둘러싸인 무덤이 눈에 띈다. 이 사진은
최초 공개되는 것으로 현재의 기독교 묘지 앞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며, 현재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합성하면 묘지의 정확한 위치도 추정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문 57쪽, 미국인의 뤼순감옥 공공묘지 발굴 당시 사진

2010년 2~3월 경 미국인 남성 4명과 선양 대학의 교수 및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학술조사
단이 뤼순감옥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당시 뤼순감옥구지박물관 화원구이 관장의 배려로 3일
간 공공묘지 탐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이곳에 묻혀있을지도 모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국인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질탐사 방식으로 공공묘지를 발굴하였다. 우리도 이러
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책소개

이 책은 아직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매장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집필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투사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이토 히
로부미를 저격하고 사형선고를 받으며 남긴 유언은, 국권을 잃은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답답
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
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을 것이다.”

2014년은 안중근 의사 의거 105주기, 순국 104주기가 되는 해이다. 하지만 국권이 회복
되고 안 의사가 순국한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뤼순감옥 죄수 묘역에 안장했다는 기록과 전언만으로는 정확한 유해
매장지의 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2008년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
을 진행했음에도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가 설립되면서 민간적 차원에서 유해 발굴에 나
서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명인 안태근 박사는 EBS PD로 재직할 당시 <안중근 순국 백
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매장지로 매우
유력한 뤼순일야감옥구지박물관을 지목하였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조사가 모두 이곳을 향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를 더 이



상 닳선 타국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에 묻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내었다. 중국 뤼순으로 가 현지 조사를 한 일부러, 뤼순의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 안중근 의사 서거 당시 묘지를 참배했다고 하는 증인들, 뤼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에서 근무했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도 담겨있다. 이는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의 목표이기도 하여,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가 그간 행해왔던 노력과 맛보았던 좌절 등을 수록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한시라도 빨리 발굴해 안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는 물론 민간에서도 힘을 보태어 안중근 의사를 고국으로 모셔 와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안중근 의사 유해 환국 사업에 조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고대해본다.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허영선 著, 서해문집 刊, 272쪽)



현대사 최대의 비극 제주4·3

**그것을 모르고서는 역사의 한 줄도
나아가지 못한다!**

**기억하라, 3만여 명의 애절한 통곡을!
되새겨라, 저항과 아픔의 역사를!**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
예순여섯 해 만에 통곡할 자유를 얻다**

예순여섯 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초로에
들어선 그 긴 세월. 입 막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살아온 예순여섯 해. 부모형제 일가친척의 죽음
에 눈물은커녕, 제사조차 숨어 지내야 했던 예순

여섯 해. 영혼조차 자유를 얻지 못했던 그 긴 세월,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는 이제야 처음의
그 자리에서 통곡할 자유를 얻었다.

그렇다고 ‘4·3’이 침묵 속에 억울함과 슬픔을 넣어두었던 것만은 아니다. 1960년 4·19
에서 시작된 ‘역사 바로 잡기’는 5·16쿠데타에 꺾이고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정권에 짓눌렸
으나 결국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그 목소리를 높여갔다.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 ‘국가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진상 보고서가 채택된다. 이에 국가를
대신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드디어 66주기인 올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
돼 온 나라가 그 희생에 머리 숙이는 날을 맞은 것이다.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제주 민중이 온몸으로 써내려간 ‘4·3’ 연대기

《제주4·3을 묻는 너에게》는 쉽게 읽히는 책이 아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다. 오히려 시인인 지은이가 지극히 쉬운 문체로, 말하듯이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4·3이야기다. 하지만 한자, 한 줄, 한 쪽을 허투루 지나치기가 어려운 깊이를 글의 안팎에 담고 있다. 지은이는 4·3의 발단과 전개, 그 끝나지 않은 역사를 섬 사람들에게 바짝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 몸짓 심지어 침묵까지도 담아냈다. 지은이 역시 그들 중 한 명이기에 독자는 더 가슴 저미는 생생함을 느낄 것이다.

저자는 8년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간되어 일본과 중국에서도 번역 출간된 《제주4·3》에 더하여 집단 학살의 증언과, 특히 역사의 혼돈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여성들이 당한 고통을 증언과 함께 깊이 있게 다루었다. 또한 강요배 화백의 ‘4·3 연작’ 가운데 여러 작품이 들어 있어, 그날의 참혹함과 억울함을 생생하게 더해준다.

하지만 이 책은 그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해 쓰인 것은 아니다. 4·3은 역사이기에 해방 전후의 역사적 상황을 별면으로 붙이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더욱이 온 섬이 학살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제주도의 4·3유적지를 자분자분 동행하며 ‘그날’을 설명해주는 부록도 책 뒤쪽에 있다.

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학살터 위에서 골프를 치고, 기업 수련회를 열고, 신혼여행·효도관광·걷기여행을 하는 셈이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역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게 하는 책. ‘내일’이 ‘오늘’, ‘어제’를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4·3’을 들려줘야 한다. 《제주4·3을 묻는 너에게》는 그런 책이다.

지은이의 말 중에서...

오로지 살고자 산으로만 다니다 보니 ‘산사람’이 되었다던 중산간 마을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살기 위해 이 땅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던 이들, 그들은 떠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감감하고 불안한 항로, 똑딱선을 타고 가며 얼마나 떨었는가. 쓰는 내내 그 시국을 살아내야 했던 그해의 눈빛들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4·3은 미래 세대, 후손들을 위한 희망이어야 한다며 힘겨운 기억을 꺼내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추천의 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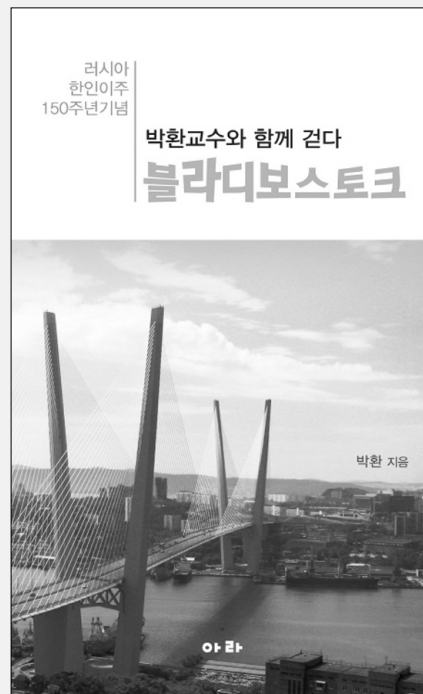
제주4·3이 우리나라 역사의 여정 전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제주4·3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역사적 진실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3만여 명의 무고한 희생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고 땅속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_강우일 주교, 천주교제주교구장,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해협이 수평선을 자신의 가슴으로 삼은/ 한 누이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해협의 병풍을 두른 조상의 화산회토를/ 자신의 형이상학으로 삼은 한 비바리의 순결이/ 여기 있으니,/ 해협의 피어린 역사를 한평생의 의식으로 삼은/ 지조가 여기 있으니,/ 시인 허영선의 진지한 ‘4·3’은 하나의 기록 행위 그 이상이다./ 초혼의 세계이다./ 또한 허영선의 ‘4·3’은 과거가 아니라/ 오도와 망각을 타파하는 시적 현재로 엄중하다.// 다 읽었다. 한 번 더 읽어야겠다. 오늘 밤,/ 제주도의 파도 소리를 꿈꾸고 싶다. _고은 시인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4.3은 시인이 써야겠구나’ ‘시인이나 소설가, 화백이 가슴에 파고드는 진실을 정말 잘 그려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다. 2만 5000에서 3만을 헤는 4·3 희생자들의 처절한 모습, 오로지 ‘살암시민 살아진다(살다 보면 살게 된다)’며 살아온, 죽음의 문턱에 있었거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심정과 삶은 시인의 마음을 통해야 온전히 그려질 것 같다. 가슴을 에는 고통과 슬픔, 불끈 치솟는 분노도 시인이 제대로 말해줄 것 같다. _서중석 역사학자,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환교수와 함께 걷다. 블라디보스토크 -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기념 (박환 著, 아라 刊, 224쪽)



올해는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지 1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아울러 한국과 러시아 간에 무비자협정이 맺어진 첫해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를 방문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어 그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발간하고자 생각하였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진리인 것 같다.

이 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희망이다.

제목에서처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혁명광장일대, 전망대부근, 개척

리부근 등 몇 개 동선으로 나누어 걸어서 답사하도록 꾸며졌다. 기점은 한국인들이 주로 투숙하는 현대호텔을 기점으로 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관광하다보면 답답한 것이 교통체증이다. 사실 걸어 다니면서 보면 금방 볼 수 있는 지역들을 버스 안에서 답답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 여행객들은 잘 모른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생생한 모습들이 이 한권의 책을 통하여 여러분께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항일투쟁으로 산화한 애국지사 애일라 (김수호 著, 열레빗 刊, 312쪽)



이 한 권의 소설로 애국자가 되라
항일투쟁으로 산화한 애국지사
《애일라》

“우리 국모를 능욕해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 황제의 자리를 빼앗는 왜놈들의 개돼지가 되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너희는 대한제국의 백성이 아니냐? 신라의 개돼지는 될지언정 왜놈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며 참수당한 박제상을 모르느냐!”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으로 산화한 이애라 애국지사가 소설 《애일라》에서 왜놈 순사의 앞잡이가 된 조선인 순사보들을 향해 호통치는 장면이다. 작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의 황색 군복을 보는 순간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말끝마다 귀기가 서렸다. 그녀 자신도 놀랐다. 방금 전까지 숨 한 번이라도 크게 쉬면 꺼져버릴 것 같은 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보자 그런 힘이 솟아났다. 그 힘은 필시 분노에서 생겼을 것이다. 그동안 보아온 일제의 행태와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동포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생긴 힘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에 몸담은 여성 애국지사 가운데 훈장을 받은 분은 241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유관순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 이 어찌 통탄한 일이 아닐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애국지사들을 기려야 할 몫은 우리 모두의 짐일진대 이 소설의 주인공 이애라 애국



지사도 우리는 잘 모른다. 이해라 애국지사는 어린 자식을 왜경에게 빼앗겨 죽임을 당했어도,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해 육신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항일투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다가 27살의 나이로 순국했다.

작가 김수호는 이 이해라 애국지사를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을 던졌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속에 몸부림쳤다. 그리고는 맛깔스러운 문체와 숨을 몰아쉬게 만드는 긴박감으로 한 번 소설을 들면 맨 뒷장을 볼 때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소설《애일라》속에는 여성독립운동가 하란사를 비롯하여 이규갑, 이규풍과 같은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외를 드나들며 목숨 바쳐 헌신한 이야기들로 가슴을 먹먹케 한다. 마침내 소설을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독자는 한 사람의 애국자, 아니 한 사람의 신독립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침략 전쟁 사죄 촉구 국제연대’ 발대식



지난 5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사)독립유공자유족회가 주관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 사죄 촉구 국제연대’가 주최하는 일본의 침략 전쟁 사죄 촉구 국제연대 발대식이 내빈 및 시민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윤재희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제1부 발대식과 제2부 연극 봉선화 관람으로 이어졌는데, 1부 행사는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신홍우회장의 경과보고,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의 인사말, 윤경빈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격려사, 그리고 각계인사의 축사와 박근영 독립유공자유족

회 사무총장의 결의문 낭독, 김우전 원로애국지사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남북이 함께 결성하기로 합의한 ‘일본의 침략 전쟁 사죄 촉구 국제연대’는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하여 각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학생단체, 기타 독립운동 단체 등 60개 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6월 10일 서울 다래현에서 신흥무관학교 103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가 열렸다.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김동삼의 신흥무관학교 참여와 통의부 활동’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백광운(채찬)의 백서농장 경영과 재만 무장투쟁’ (김병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백산 지청천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황민호 숭실대 교수), ‘김학규의 재만 무장투쟁과 한국광복군의 활동’ (김삼웅 前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는 항일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위해 서간도 지역에 설립된 독립군 양성 학교로, 1911년 6월 10일 이회영 · 이시영 · 이동녕 · 이상룡 등이 중국 삼원보에 설립한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에서 출발하였다.

중국 시안, ‘한국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한국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이 5월 29일 중국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됐다.

1942년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제2지대가 주둔했던 시안시 창안(長安)구 두취진(杜曲鎮)에서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열린 제막식에는, 왕리샤(王莉霞) 산시성 부성장 등 중국정부 관계자 외에 박승춘 보훈처장, 윤경빈 전 광복회장, 김유길 광복회 부회장, 김영관 광복군 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이 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협조 아래 추진됐은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우리 측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유길 부회장은 당시 광복군 제2지대에서 복무했다.

완성된 광복군 표지석은 높이 1.8m, 폭 1.1m로,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졌다. 공원부지 등을 포함한 전체 기념시설은 3무(畝·1무는 약 200평) 규모다.

표지석 전면에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옛터 1942년-1945년’이라는 금색 문구가 중국어로 새겨졌다.

뒷면에는 “한중 국민이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압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기념하고, 항일 승리에 기여한 바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문구 등 광복군의 항일투쟁 활약상 등이 한국어, 중국어로 병기되어 있다.

봉오동전투 전승 94주기 기념 국민대회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는 6월 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대회는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 및 광복회가 후원하며, 우당청소년역사교실을 수료한 학생들이 참석했다.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1920년 6월 7일 압록강을 건너 추격해오던 일본정규군 대부대를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 대승을 거둔 역사적 사건이다.

백범 김구 선생 제65주기 추모식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 김구선생 65주기 추모식이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회장 김신)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신 기념사업협회회장의 식사(式辭), 정의화 국회의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박유철 광복회장의 추모사,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追慕歌),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백범 김구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194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에 선임되었으며 신민회, 한민애국단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해방 후,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앞장선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구파 백정기의사 순국 제80주기 추모식



6월 5일은 백 의사가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한 날로 올해 80주기가 되는 해를 맞이하여 추모식이 열렸다.

(사)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 기념식에는 김생기 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 전홍범 광주지방보훈청장, 박행병 익산보훈지청장, 수원백씨 종친회 등 일반인 250여명과 정읍지역 초·중·고등학생 250여명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은 백의사 독립운동약사 낭독과 문화공연을 비롯 제2회 전국 추모 글짓기대회 공모전 시상식 및 사생대회도 함께 열렸다.

구파 백정기의사는 일본 천황 암살 시도와 일본 군사시설 파괴 등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로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4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정재		5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종락	3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권상운	10,000	10,000	박인석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김경애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향중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해진스님	10,000	1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배해원	30,000		이해준	20,000	20,000
김동근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명철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모현	20,000	2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상웅	10,000	20,000	성유보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성배	10,000	1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형진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팔순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영한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소중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영방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영일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용덕	10,000		오성근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용수	5,000	5,000	오승숙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윤수	30,000	3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우상호	3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재홍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상수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정록	50,000	50,000	유은숙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종성	10,000	10,000	유원목		1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종배	20,000	20,000	유종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경자	20,000	2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윤영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건웅	10,000	1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계환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병규		10,000	홍용희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황인순	20,000	2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상훈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성배	10,000	10,000			
문재선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아영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2014년 5월, 6월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심우섭	1,000,000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여성독립운동가 ⑦

105인 사건과 서대문형무소



일제강점 초기 일제의 무단적 횡포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105인 사건은 총독미수사건이라는 사전 날조된 각본에 따라 피의자들의 거짓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조작되었던 허위사건 이었다.

이처럼 무모한 사건을 일제가 강제병합 직후 자행했던 것은 폭압적인 무단방법으로 한국의 국권을 강제하려 하였으나 향후 이에 반발하는 국내 반일세력, 특히 서북지방의 기독교 민족세력을 단숨에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꾸며진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재도라는 근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정당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수가 600여 명 이상이고 이들 가운데 양기탁, 유동열, 이승훈, 이명룡 등은 훗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지도세력으로 성장한 것만 보더라도 항일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05인 사건 결과 일제는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식민지 무단통치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됨에 따라 동양 유일의 문명국가로 선전해왔던 일본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말았다. 반면 이 사건을 통해 신민회의 실체가 밝혀져 국내 비밀결사로서의 신민회 조직체가 와해되었지만 전국 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항일독립운동을 견인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었던 장소가 바로 서대문형무소인 것이다.

구한말 까지 흔히 ‘전옥’, ‘감옥’이라 불리었던 형무소는 원래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옥서(獄署)’였다. 그러나 강제병합 이후의 감옥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법자를 가두는 시설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개화, 개혁운동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옥고를 치렀으며, 식민지배에 항거한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옥사한 곳으로 한이 서려 있는 곳이다. 하지만 옥중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고 세계관을 기르는 옥중학교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의지와 꿈을 키우며 애국동지들이 의기투합하던 독립운동의 산실이기도 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는 우리민족의 의식을 배태시키고 고양시킨, 다시 말해 빼앗긴 조국의 주권과 국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 애족 정신을 발현시킨 현장이었던 것이다.

하얼빈! 백두산! 압록강!

중국 동북지역 항일독립투쟁 현장을 찾아서..

2014. 7. 17 목 ~ 2014. 7. 23 수 (6박 7일)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50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대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4년 4월 23일(수) ~ 6월 5일(목)

선발발표 _ 2014년 6월 10일(화)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75만원 (일체경비 포함)

기 타 _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참조



답사지역 : 하얼빈-해림-동경성-도문-연길-용정-화룡-백두산-삼원포-통화-단둥-대련-려순

주최 _ (사) 대한민국의정부기념사업회

후원 _ 대학내일

영양성 No.1 미디어